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54호
2023년 10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귀빈 대접' 서울대 나들이 ... 모교 사랑 절로 '쑥'



지난 10월15일 홈커밍데이를 맞아 모교를 방문한 미주 동문 62명이 서울대 정문 앞에 모여 옛 추억을 떠올리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주 동문 60명 홈커밍

미주 동문 60명이 마음의 고향인 모교를 찾았다.

지난 10월1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버들골과 풍산마당에서 열린 홈커밍데이에 참가한 미주 동문들은 유홍립 총장이 준비한 성대한 오찬과 VIP만 초대하는 전야제 음악회 참가, 버스 2대를 대절한 교내 투어 등 귀한 손님 대접을 받으며 모처럼의 모교 나들이를 즐겼다.

미주 동문들은 이날 서울대 정문에서 만나 학창시절의 싱그러운 옛추억을 떠올리며 캠퍼스 곳곳을 둘러봤고 농생대 밴드 '샌드페블즈', SNU브라스밴드, 재학생 동아리들이 준비한 춤과 노래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서울대인인 한 가족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미주 동문들은 이날 모교의 귀빈 맞이에 화답해 모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도 앞다퉈 쾌척했다.

서중민(공대 64) 전 필라델피아 회장이 정직한 학생에게 주는 정직장학금 1만 달러, 남가주 박종수(수의대 58) 동문이 10만 달러(누적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뉴욕 이진구(농대 60) 제 8대 미주동창회장은 홈커밍데이 협찬금으로 1000달러를 보냈다.

특히 모교 사랑으로 유명한 간호대 59학번 뉴욕 삼총사 김현희, 박정호, 이(강)정자 동문이 각각 10만 달러씩 모두 30만 달러를 모교에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관계기사=14·15면>

백옥자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올해 모교가 주는 큰 상은 미주 동문들 품으로

서울대 동문 위한 공로상 무엇이 있나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상훈 중에 국가에서 주는 훈장이나 표창 말고 가장 기쁜 것이 모교나 모교 동창회에서 주는 상이다. 특히 모교나 모교 동창회에서 주는 상은 함께 수학한 동문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기에 일반적인 회사나 사회단체 등에서 받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

서울대 출신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개 이런 상들은 학문 연구, 사회활동,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거나 사회봉사, 사회 기여, 자선 활동 등



하기환 동문



김성열 동문

에서 눈에 띄는 경우에 해당된다. 서울대 동문으로 가장 영예롭게 여길 수 있는 상은 3가지가 있다. 모교에서 수

여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서울대 발전 공로상'이 있고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선정하는 '관악대상'이 있다. 모교 입장에서 졸업생들에게 시상하면서 재학생에게 동기 부여하는 측면이 있고 동창회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기부금을 이끌어 내는 유인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총 44만 서울대 동문 중에서 매년 몇 명만 수상하니 가능성이 수만 분의 일이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동문도 수상자가 의외로 많다.

모교 선정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은 모교 동문 또는 모교에서 장기간 봉직한 사람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 <3면에서 계속>

알림

■ 미주동창회 이상강 회장과 김경숙 사무총장, 백옥자 총무국장 등 집행부가 10월15일 홈커밍데이를 맞아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관계로 보내주시는 동창회비나 후원금, 종신이사비가 10월호 동창회보에 업데이트가 안됐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명단은 11월호에 게재 하겠습니다.

■ 9월호 동창회보가 인쇄 문제로 예정일 보다 한참 늦게 배달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사용자 활용도 높이는데 초점 맞춘다

미주 동문 연락처 DB 구축 왜 필요한가

미주 동창회에서 구축할 DB(이하 DB)는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정보를 잘 모아서 지부, 미주 동창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문 회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반영된다.

#지부 입장에서는 회원 관리와 행사 참석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회원들에게 개별 연락을 위해서 전화나 카톡으로 가능했지만 이메일로 단일화하게 되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부별 세대별 DB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돼 동문 네트워크에 힘이 실리게 된다.

또, 지부 임원진은 한번 구축해 놓은 리스트에서 개별 동문의 이동, 별세, 귀국 등의 변동 사항이 생겨도 관리도 훨씬 손쉬워진다.

#단대 동창회에서는 미 전역 동문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지역별, 선후배별 단과대학 졸업생 네트워크를 열 수 있다. 그동안 학과나 단과대학의 명칭 변경, 통합, 분리로 인한 상이함이 졸업 당시 학과로 등록하게 돼 미미하게나마 있었던 혼란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단대 동창회는 선후배들이 함께 소속돼 운영하게 된다.

#개인 동문 입장에서는 가입과 동시에 동문 네트워크에 편입돼 소속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타교에 비해서 동문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서울대는 모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동문 네트워크는 절실하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 동부는 유학 온 후배들이 많고 서부는 정착하거나 은퇴하는 동문들이 많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므로 가입 등의 절차가 용이해진다.

미주 내 이주나 새로운 곳의 정착을 원할 때도 동문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주에는 지역별로 동문 선배들, 특히 미주에 정착하는 후배에게 의미있는 조언을 해줄 만한 은퇴한 선배들이 많기 때문이다.

#DB구축으로 동창회가 더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회원 모두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동창회 주최 행사에 참여가 쉬워진다. 계절에 맞춰서 피크닉은 물론, 음악회 단체 관람, 단체 관광 등의 기획도 쉬워진다. 선후배들과의 네트워크를 통

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얻기도 쉬워진다. 아울러 회보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 접근성이 좋아진다. 나이대별, 거주지역별로 소모임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미주총동창회에서는 각 지부별 인원 파악을 통해 인구학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장학금이 필요한 지부에 더 많은 후원이 가능해지는 것은 보너스와 같다. 또 원하는 동문에게 회보 발송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업체와 제휴를 통해 동문 할인 혜택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동문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도 있다. 이외에도 전체 동문을 참여시켜 안전별 의견을 묻는 투표도 가능해진다. 또한 매년 여러 건의 의뢰가 들어오는 미주 동문 찾기도 용이해진다.

구축된 DB를 한국 총동창회에 일괄 통보해 한국에서 미주 동문과 교류나 협력이 현재보다 더 쉽게 가능해진다.

#기존 데이터를 파악해보니 총 8483건의 동문이 파악됐다. 또한 추정해 왔던 사항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확보하고 있는 셀폰 숫자와 이메일 숫자는 가히 충격적일만큼 적다. 이제까지 일방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피드백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아래 박스기사〉

동창회의 한 임원은 “의외로 등록 안된 동문이 많고 중복 등록된 사람도 많았다. 특히 유학 마치고 귀국했거나 동명이인의 기록을 잘못 올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겠지만 한국의 44만명에 비해서 전체 동문이 1만명 안팎으로 추정돼 더 알차고 의미 있는 동문 네트워크 가능하다”고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그는 또 “동문간의 교류 통해 한인 정체성을 가진 2세들을 도울 수 있는 1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행부의 DB구축 계획 발표(본보 지난 9월호)에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첫 시도가 아니고 여러 차례 비슷한 노력이 있었지만 깔끔한 마무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에는 기술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매우 고가여서 엄두도 못냈지만 이제는 시스템 구축에 장애물이 아니어서 시도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DB 구축 작업이 무사히 끝날 수 있는지 여부는 첫째, 각 지부가 얼마나 열심히 동문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느냐. 둘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인데 뻔히 동문인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서로 등록을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

현 DB분석

지난 2022년 본보는 독자 심층 분석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거주 동문이 32%나 차지하는 등 동문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큰 변화는 없다. 새로운 DB 구축을 위해서 몇가지 분석을 더해봤다.

우선 총 8483명의 기록 중 주별 주소지를 확인해봤다. 캘리포니아가 29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뉴욕 858명, 뉴저지 672명이었고 일리노이 543명, 워싱턴주 249명, 펜실베이니아 245명, 조지아가 240명이었다. 주소지가 불명인 인원은 88명에 불과했다.

지부별 동문은 남가주 2206명, 뉴욕, 뉴저지 1529명으로 1000명이 넘었다. 이어서 워싱턴DC 777명, 시카고 602명, 북가주 554명, 뉴잉글랜드 259명, 필라델피아 257명, 캐나다 밴쿠버 254, 조지아 252명 등이 200명이 넘는 지부였다.

출신 단과 대학별 인원 분석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다. 소속이 기재되지 않은 인원이 무려 4716명으로 절반이 훨씬 넘었다. 전국적으로 공대를 나온 것으로 기록된 동문은 총 701명이다.

이어서 의대 602명, 문리대 350

명, 음대 317명, 상대 238명, 간호대 223명, 사범대 214명, 법대 173명, 생활과학대 167명, 미대 137명, 약대 133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입학년도의 경우도 미입력된 경우가 무려 6169명이었다. 결과를 보면, 60년대 입학 학번이 833명, 50년대가 696명, 70년대가 356명, 80년대가 232명이었다.

한편 연락망과 관련해 중요한 셀 폰 번호는 1159명만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7324명의 번호는 갖고 있지 못했다. 이메일도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2858명으로 5625명은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체 8483명 중 김씨 성을 가진 동문이 1610명으로 19%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한국인 김씨 성씨 비율인 22%에는 조금 못미쳤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동문 DB를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부별, 단과대별 정보 확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둘째, 주소보다는 셀폰과 이메일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단과대명, 학과명, 동창회명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성씨별 인원

입학년도별 인원

미입력	6169
오류	4
1940-1949	56
1950-1959	696
1960-1969	833
1970-1979	356
1980-1989	232
1990-1999	95
2000-2009	34
2010-2019	8
총계	8483

김	1610
이	1351
박	595
최	382
정	384
강	181
조	277
윤	171
장	169
임	163
이외	3200
총계	8483

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내부 메시지, 지부별 페이지 구축 여부 등의 문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부는 물론 모든 동문이 네트워크 구축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김경숙 사무총장은 “동창회보가 매월 8000부가 발송된다”면서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각 지부에 소속된 동문들의 숫자와 발송 부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정확하지 않은 목록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도 부족해 진실보한 DB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업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정확한 동문들의 숫자를 파악하고자 한다”며 “각 지부에서 열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희 편집위원**

서울대 동문 대상 시상

수여기관	시상명 및 지원마감일
서울대(개교기념일, 학위수여식시상)	자랑스러운 서울대인(9월 중순 지원 마감), 발전공로상(6월 초순 지원 마감), 사회봉사상(6월 중순 지원 마감)
서울대 총동창회(총회서 시상)	관악대상(2월 초순 지원 마감)
공대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 발전공로상
수의대 동창회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상과대학 동창회	빛내자상
치대 및 치의학 대학원 총동창회	자랑스러운 서울대 치과인상
건축학과 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토목공학과 동창회	사랑스러운 해외건설인상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의대 동창회	함춘대상(사회공헌부문, 의료봉사부문, 학술연구부문), 함춘학술상(함춘 의학상, 함춘젊은연구자상, 함춘동아의학상)
총불교학생회 동문회	자랑스러운 동문
문리대 동창회	4.19 민주평화상
미대 동창회	SNU아트페어

〈1면에서 계속〉

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모교를 빛낸 사람이다. 반면 '발전공로상'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이고 함께 시상되는 '사회봉사상'은 국민과 사회의 존경을 받는 경우다. 위싱턴주 거주 김성열(치대61) 동문이 지난 8월 모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서울대 발전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총동창회가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관악대상'은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명예를 드높인 동문이나 단체다.

남가주에 거주하며 지난 10월 개막한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한상)의 하기환(전기공학 66·얼굴사진) 대회장장이 지난 3월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 25회 관악대상을 받았다.

다음은 각 단대 및 동창회가 선정하는 상이다. 선정 방법과 수상자 등은 주관 동창회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전적으로 결정한다.

서울대 공대가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 '발전공로상'을, 수의대동창회가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치대 및 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도 '자랑스러운 서울대 치과인 동문상'을, 보건대학원 총동창회도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상과대학동창회도 '빛내자상'을, 토목공학과(건설환경공학부) 동창회가 '자랑스러운 해외건설인상'을, 건축학과 동창회도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의대 동창회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인류복지증진과 의료계 발전 등 사회적 학술적으로 큰 기여를 한 동문(만60세 이상)에게 함춘대상을 시상한다.

이외 문리대동창회가 동문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4.19민주평화상'을 지난 2020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한편 미대 총창회는 동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동문들에게 작품 소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SNU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혼자만 잘 살지 말고 함께 잘 살게 이끌어야”

최재천 동문, 졸업식 축사 화제

“자연에도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더군요. 서울대 졸업생으로서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 주십시오.”

지난 8월29일 진화 생물학자이며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인 최재천(문리73) 동문이 모교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공정과 양심을 당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 동문은 이날 축사에서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니다. 가진 자들은 별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는다”며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비로소 공정이 된다. 양심이 공평을 공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며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을 거듭 강조했다.

최 동문은 모교 동물학과를 졸업한 뒤 펜실베이니아주립대(Pen State)에서 생태학 석사 학위를,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4년 귀국해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는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학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 동문의 축사는 그의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www.youtube.com/watch?v=coi-iUjPK14)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부고

‘건반 위의 철학자’ 러셀 셔먼 별세
변화경 동문 남편이자 ‘임윤찬의 뿌리’

‘건반 위의 사색가’로 불리며 미국이 사랑했던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 교수가 지난 9월30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셔먼 교수는 뉴잉글랜드 음악원 첫 한인 교수이자 1990년대 재미 음대 유학생의 대모 역할을 했던 변화경(음대 66학번) 동문의 남편이다.

셔먼 교수는 변화경 동문을 통해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으며 종종 한국을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고 표현하곤 했다.

천재 피아니스트로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임윤찬의 스승 손민수씨와 서울대 음대 교수를 지낸 피아니스트 백혜선씨가 셔먼 교수의 제자다.

임윤찬도 평소 존경하는 피아니스트로 스승의 스승인 셔먼 교수를 꼽았고 지난해 6월 밴 클라이번 콩쿠르 준결선을 앞두고 스승 손민수에게 “오늘 연주는 미스터 러셀 셔먼에게 바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백혜선씨도 손민수씨도 평생의 스승이 머물렀던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임윤찬도 스승을 따라 올 가을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 편입했다.

변화경 동문은 스승으로 만난 셔먼 교수와 1974년 결혼했으며 부부가 함께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와 석좌교수로 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했다.

수의대 정정우 동문 별세

대형 식품유통 기업 해태 USA 대표인 정정우(수의대 74) 동문이 지난 9월29일 별세했다. 향년 68세.

고인은 대학 졸업 후 한국 해태상사를 거쳐 1996년 해태 USA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 해태 USA를 독립 법인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고인은 미국 내 한국 식품 확산에 기여하고 한인 커뮤니티 봉사활동에도 힘썼다.

동창회 큰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한국 식료품을 경품과 선물로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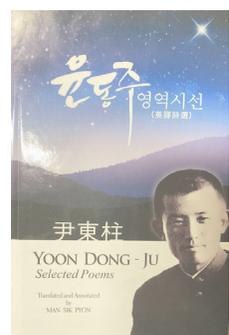
워싱턴DC 변만식 동문 별세



대표와 이사장으로 봉사했다.

워싱턴 운동주문학회 창립 멤버로 ‘운동주영역시선(Yoon Dong-Ju Selected Poems)’을 출간해 미주운동주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이 책은 의회 도서관 소장 도서로 등록됐다.

지난 10월 14일 방은호(약대 42) 동문 등 지인과 가족, 친지들이 버지니아 페어팩스의 한 식당에 모여 ‘변만식선생 추모 문학회’를 열고 그의 번역작품을 낭송하며 변 동문의 문학과 인생을 추억했다.



워싱턴DC 동창회장을 역임한 변만식(사대47) 동문이 지난9월14일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변 동문은 국무부 산하 P&E회사에서 근무하고ERA변만식부동산회사를 설립해 운영했으며 기독교 윤리실천의 공동

한반도 DMZ 평화의 길 따라 자전거 질주

미네소타 김권식 동문, 파주서 고성까지 250마일 대장정

미네소타에 사는 김권식 동문(공대 61)이 지난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진 비무장지대(DMZ)를 자전거 타고 질주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동부전선에서 중공군 개입으로 불리해진 미군이 철수하며 피난민을 대거 구출한 ‘흥남 철수’ 때 남한으로 내려온 친구를 위해 서였다. 공대 동창이자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 주동명 동문이 늘 고향을 잊지 못하고 가고 싶어 하자 만든 이벤트였다. 김 동문의 DMZ 자전거 달리는 한국 동아일보에서도 관심있게 소개했다.

“동명이가 고향을 가고 싶어 해 언젠가 ‘그럼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휴전선을 자전거 타고 달리자’ 고 했죠. 그런데 남북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우리 나이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 올해 감행했습니다. 알아보니 평화누리길이 잘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달렸습니다.”

김권식 동문은 친구 주동명 뉴욕시 기술담당 시설 국장, 미네소타 반도체업체 인테그리스(Entegris) 에서 장비 담당 매니저로 있는 동문 후배 이병학 박사, 그리고 삼성그룹 임원 출신 김대원 씨(67) 등 다른 3명과 함께 달렸다.

전 구간을 달릴 순 없었다. 평화누리길이 잘 정비된 곳도 있지만 자동차 도로를 이용해야 해 위험하거나, 너무 가파른 구간은 뺐다. 혹시 다른 차량이 팀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트럭 한 대를 대여해 횡단팀 뒤에 따르게 했다.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 일부 군사지역에는 들어가기도 하고 허가를 안 해줘 돌아가지도 했다. 하루 최대 50km, 총 400km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임진강 한탄강 그리고 멋진 산으로 이어진 금수강산을 맘껏 구경했지만 철조



김권식 동문 팀이 비무장지대(DMZ)를 자전거로 달리다 함께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이병학, 김대원, 김권식, 주동명 동문.

공대 동창 뉴저지 주동명 동문 등 3명 동행 “금수강산 맘껏 봤지만 분단 현실 안타까워”

망과 군부대로 막힌 분단 현실에 안타까움도 느꼈다.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이어진 산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경험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곳곳에 있는 맑은 개울도 인상적이었죠. 강원도 속초에서 고성으로 이어진 해안길도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이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고, 군부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을 잠시 멈춘 분단국가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직 진정한 평화가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이런 여행이 가능했던 배경엔 김권식, 주동명, 이병학 세 동문 모두 ‘스포츠 천국’ 미국에서 오래전

부터 스포츠를 즐기며 탄탄하게 키운 체력이 있었다.

테니스와 마라톤을 즐기는 주 동문은 매일 새벽 1시간에서 1시간30분 달리고 출근한다고 한다. 이 동문은 겨울에도 자전거로 출퇴근할 정도로 자전거광이다. 국내 거주하는 김대원 씨도 오랜 전부터 자전거로 건강을 다져왔다.

김 동문은 “동명이가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제력이 약해 몇 번 넘어지기는 했지만 큰 부상 없이 DMZ를 따라 한반도를 횡단했다” 고 말했다.

김 동문은 “4번의 고비가 있었다” 고 했다.

“화천의 수피령, 양구의 돌산령, 미시

령 옛길, 그리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모군부대가 있었던 고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풍광은 좋았지만 오르기는 쉽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전거 끌고 걸어서 올랐는데도 정상에 오르니 탈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김 동문은 1969년 미네소타대로 유학을 떠난 뒤부터 운동을 생활화한 덕분에 건강한 노년을 즐기고 있다. 여든 살의 고령이면서도 매일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다.

“미국은 스포츠 천국이었어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죠. 테니스와 탁구, 배드민턴, 자전거 타기, 스키, 피트니스, 걷기 등을 즐겼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삶에 활력이 떨어져 힘들었어요.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운동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서울대 시절부터 테니스를 즐겼던 김



김권식 동문은 혹시 다른 차량이 팀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트럭 한 대를 대여해 횡단팀을 뒤따르게 했다.



김권식 동문이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고 있다.



김권식 동문 팀이 백마고지에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김권식,, 이병학,, 주동명 동문.

동문은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생활화하게 됐다. 그는 “운동을 하려거든 재미있게 하라”고 말한다. 노동처럼 하는 기계적 운동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순간을 즐겨야 한다. 겨울엔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컬링 등을 즐겼고 그 외 계절엔 바람과 햇빛을 즐기는 하이킹과 자전거 타기, 골프, 테니스 등으로 건강을 다졌다.

나이 들면서는 부상 위험이 적은 스포츠로 방향을 바꿨다. 겨울엔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탁구, 여름엔 골프와 걷기를 주로 한다. 웨이트트레이닝은 평생 체력 단련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1시간15분에서 2시간, 다른 스포츠도 한번 하면 2시간씩은 한다.

김 동문은 가족, 회사원에게도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리 회사에선 컴

퓨터 앞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지 말도록 권유한다. 산책도 하라고 한다. 집과 회사에 탁구장도 마련했다. 틈나는 대로 탁구도 친다. 건강해야 일도 잘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인 황성숙 씨(79)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탁구, 골프, 걷기 등을 함께 즐기고 있다. 대학 때까지 스키 선수였던 두 아들과 다운힐 스키도 함께 타기도 한다.

김 동문은 “건강하니 DMZ를 따라 한 반도도 횡단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뜻깊은 여행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김 동문은 미네소타에서 태양광 에너지 회사 EVS(Engineering, Value, Service)를 창업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공로로 한국에서 기업가상을 받았다.

양종구 기자



DMZ평화의 길을 자전거로 함께 달린 김권식, 이병학, 주동명 세 동문은 오랫동안 스포츠를 즐기며 탄탄하게 다져온 체력이 있어 고령에도 400km완주를 해냈다.

남가주 조수미 공연 성악과 직속 후배가 연다

이호중 동문 공연 기획
“동문님들 보러 오세요”

학창시절 ‘제2의 조수미’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던 성악과 직속 후배가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대선배인 조수미 동문(음대 81)의 콘서트를 기획해 무대에 올린다.

남가주 이호중(음대 94) 동문이 오는 12월 8일 오후 8시 LA 동쪽에 있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야마바 시어터에서 조수미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동문은 한국에 있을 때 공연 기획 사업을 했으며 2005년 한국에서 초연해 8만 관객을 동원하며

코, LA를 거쳐 뉴욕, 워싱턴까지 무료 콘서트 무대에 섰고 한국·태국 수교 65주년 기념 공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코리아팀의 대표 가수,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지식포럼 갈라 만찬 등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그의 의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그가 세계적인 소프라노로서의 위상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바쁘다. 12월8일 공연에 앞서 토론토, 뉴욕, 한국, 싱가포르, 리스본, 브뤼셀, 파리 등 세계 도시를 오가며 개인 리사이틀을 하고 있다.

그런 조수미가 이번엔 동문 후



조수미 콘서트를 기획한 이호중 동문.

화제를 모은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그가 성공시킨 대표작이다.

이 동문은 “사실 조수미 선배님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면서 “공연을 올리고 싶어 여러 선배들께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바쁜 와중에도 다행히 스케줄이 맞아 흔쾌히 허락하셨다”고 전했다.

근래들어 언론을 통해 접한 소프라노 조수미씨의 행보는 좀 남다르게 느껴졌다. 조수미를 표현할 때 항상 앞에 오는 수식어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었는데 요즘 그는 표현의 무게에 걸맞게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에 필요한 무대라면 가능한 한 함께 해 자리를 빛내고 행사의 격을 높이고 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시애틀을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LA를 거쳐 뉴욕, 워싱턴까지

무료 콘서트 무대에 섰고 한국·태국 수교 65주년 기념 공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코리아팀의 대표 가수,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지식포럼 갈라 만찬 등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그의 의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그가 세계적인 소프라노로서의 위상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바쁘다. 12월8일 공연에 앞서 토론토, 뉴욕, 한국, 싱가포르, 리스본, 브뤼셀, 파리 등 세계 도시를 오가며 개인 리사이틀을 하고 있다.

그런 조수미가 이번엔 동문 후배가 만든 무대에 선다.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인기 넘버, 청중의 심금을 울리는 아베마리아와 아리랑을 부른다.

▶문의: (714)340-6756

“동문 기업가 · 창업 꿈나무 모두 모이세요”

미주 동창회(회장 이상강) 산하 전국 네트워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몇 곳 중 하나가 바로 ‘기업넷’ (Entrepreneurship-network)이다. 창업 기업가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심 있는 모든 동문들에게 오픈돼 있는 오픈 소사이터이다. 펜데믹 이래 줌을 활용한 모델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기업넷에 대해서 김량국(생물교육92) 동문과 그동안의 성과를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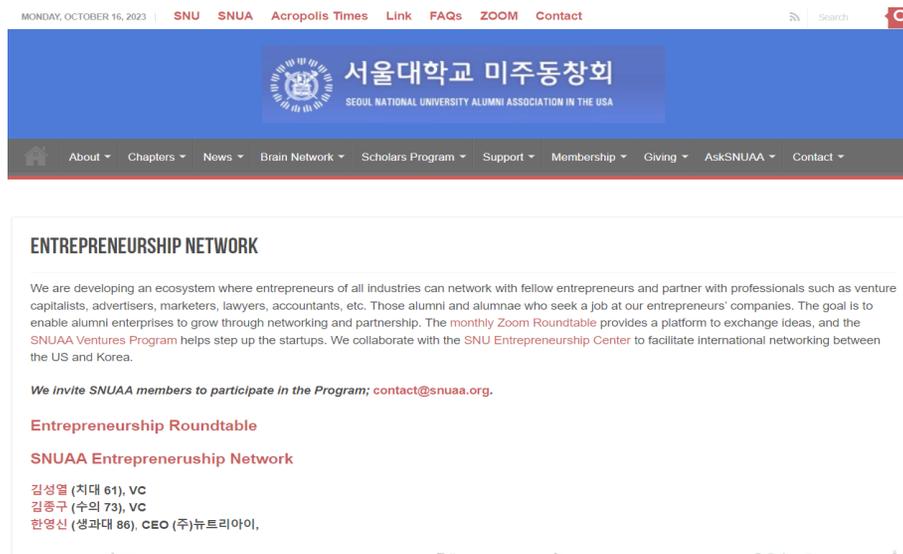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미국에서 서울대 동문으로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반적인 정보를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그럴 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겁니다.”

2022년 초부터 처음에는 그냥 모여서 얘기하는 수준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매달 모임이 진행되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체계를 갖추고 뭔가 해보자는 얘기로 귀결됐다.

첫 모임부터 브레인 네트워크를 주도한 한홍택 동문이 리드했다. UCLA석좌교수로 수많은 창업 과정을 지켜왔고 기업에서도 활동했기에 동문 창업 프로그램에 앞장섰다. 모임이 제 궤도에 오르며 마당이 마련되자 참가자들이 아는 동문을 영입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기업넷을 통해서 투자도 이뤄졌다. 서울대 동문 중 스타트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동문이 투자를 받았으면 하는 동문과 연결돼 투자가 성사되기도 했다. 이미 20곳에 가까운 동문 관련 기업이 소개됐다.

매달 둘째 화요일 태평양 시간 오후 6시에 시작되는 줌 미팅이 정기 모임인 라운드테이블이다. 현재 기업넷 카톡방에는 35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줌 미팅



서울대 미주동창회 사이트의 기업넷 스크린 샷.

2022년 출범 ‘기업넷’ 참여 동문 35명으로 한달 한번 줌미팅 ... 경영 · 투자 정보 나눠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도움 받을 수 있어

엔 매달 10~15명이 참가한다.

서부에서는 LA와 시애틀부터 동부는 뉴저지, 버지니아는 물론, 오하이오, 한국에서도 참가한다.

모교 출신별 단과대로는 공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경영대, 법대, 가정대, 인문대 출신 동문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교수 출신, 회사 생활을 오래 한 동문으로 매우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뤄진 자본 조달은 물론, 조달과 관련된 조언을 나누고 있으며, 실제 기업 경영 관련된 내용, 기타 회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모임 후에 1대1로 대화하는 기회도 갖고 있다.

김량국 동문은 “모임을 시작할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어 놀랐다”며 “60년대 학번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이들 학번들도 자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기업넷은 인큐베이터 역할은 아니지만 서울대 동문 출신들을 위한 자문(advisor)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주소록에 올라 있는 동문의 숫자는 50명 정도다.

김량국 동문은 기업넷에 새로운 예비 창업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김 동문이 예상하는 도움은 첫째, 은퇴한 경영자나 현직 경영자로부터 생생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들을 수 있고 둘째,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투자 희망자가 있어서 투



김량국 동문.

자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모임을 가지다 보면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마음이 릴렉스 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좋다고 덧붙였다.

“모임에서도 얘기가 나온 건데 미국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서울대끼리는 그렇게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문들이 모여서 ‘잘해보자’ 하고 있으니 선배님들께서도 모임이 매우 신선하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김 동문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수는 물론, 석박사 과정에 있는 동문이라도 저희 기업넷에 참여한다면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대를 나온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동문이라는 것만으로도 믿을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문의: contact@snuua.org
장병희 편집위원

기업넷에 소개된 동문 기업들

기업넷은 미주 동창회 사이트 (snuua.org) 상단 메뉴 brainnetwork 섹션 서브메뉴 Entrepreneurship-network(기업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넷을 통해서 소개된 동문 기업은 다음과 같다.

- ▶ 여재익 공대 교수, CEO, 바즈바이오메디카 Bazbiomedic: 피부&미용분야, 의료분야 모두 적용 가능한 자동반복분사 바늘 없는 약물전달기기를 개발.
- ▶ 고광국 공대54, 고국화 공대 56, Co-Chairman, Chrysan Indus-

tries: 트랜스미션 오일, 윤활유, 기타 특수 화학용품 등.

- ▶ 이민규 경영89, CEO, California Metal: 우주, 국방, 항공 금속 전문.
- ▶ 김권식 공대 61, Chairman, EVS: 각종 전기 공학 제품, 다양한 분야 제품.
- ▶ 강호석 상대81, CPA, GSK LLP: 회계 법인.
- ▶ 고종성 사대75, CEO & President, Genosco: 제약 연구소
- ▶ 양덕주 문리66, CTO/Founder, GrapheneTX: Carbon Fiber 제품.
- ▶ 이민규 경영89, CEO, Kencoa Aerospace: 우주항공 분야 특수물질, 항공

엔진 및 우주선 발사시스템 부품 등.

- ▶ 장윤정 법대 84, CEO, Hollywood Interpreter: 한영 통번역 서비스.
- ▶ 노명호 공대61, Chairman, Lee+Ro: 수자원 관리 등.
- ▶ 서진호 공대72 Developer, 신철수 공대85, CEO, Momstamin: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 보조제 판매.
- ▶ 김량국 사법92 CEO, Oak Bioniformatics: 생명정보학 시스템 관리.
- ▶ 장수연 인문94, CEO, Prevenotics: 예방, 진단 관리.
- ▶ 김진오 공대78, Chairman, Robot and Design: 로봇 설계 등.
- ▶ 박상래 공대87, CEO, Starnex: 영상 처리, 유무선 통신, 저전력 설계 제품.
- ▶ 김의신 공대67, CEO, Structur-

al-EngineerKim: 건축 구조기술 설계 등.



고종성 박사가 이끄는 제노스코가 개발한 레이저티닙(상품명 렉라자)은 유한양행을 거쳐 미국 약선에 기술이전 돼 글로벌 임상3상이 진행되고 있다.

“인류는 어떻게 지금의 인류가 되었을까”

한국인 첫 고인류학 박사 이상희 교수
‘인류의 진화’ 이어 ‘인류의 기원’ 출간
동문 사이트에 글 쓰며 스타 작가로 우뚝

‘한국 여성 1호 고인류학자’라 불리는 이상희(고고미술사학과85) UC리버사이드 인류학과 교수가 최근 4번째 한국어 책을 출간했다. 그는 2015년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해 한국 독서계에 고인류학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상희 교수를 전화로 만났다.

서울대 동문 중에서 모교와 모국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상희 동문처럼 과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학자는 많지 않다. 특히 서울대 동창회가 발굴한 가장 훌륭한 저술가이기도 하다. 이 동문은 모교 고고미술사학과를 나와 미시간 주립대 인류학과에서 석박사를 했다. 전공은 고인류학이다.

이 동문이 학자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들어서게 된 것이 바로 서울대 동문 지식 사이트인 아크로폴리스타임스(acropolistimes.com)에 ‘이상희의 인류학 산책’이라는 채널에 2011년 3월부터 글을 올리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이 매체 편집 책임자였던 이원영(정치81) 전 LA중앙일보 편집국장의 강력한 권유에서 시작됐다.

그는 미국에 유학 온 이후 처음으로 한글로 글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뒤이어 최신 인류학에 대한 칼럼을 미주 중앙일보, 이어서 한국의 과학매체인 과학동아에 기고하기 시작했다.

“고고학은 옛 사람의 흔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즉 그들이 남긴 도구(토기·석기), 집터, 무덤 자리, 부장품, 예술 등을 연구하는 거죠. 그에 비해 고인류학은 옛 사람의 몸을 연구합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몸이 모두 화석으로 남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화석으로 남기 쉬운 뼈와 이빨이 대부분이죠. 고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화석에서 고 DNA를 추출, 연구하게 되어 고인류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인류학은 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인문학을 아울러야 하는 학문이며 때로는 풍부한 상상력도 발휘해야 한다. 그는 시대를 넘나들며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인류학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기고는 아크로폴리스 사이트에 남아있다. 40편 정도의 글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바탕이 돼 첫 책이 나오게 됐다. 첫 글을 쓴 후 4년만에 첫 작품이 출간됐다. 동아사이언스 윤신영 편집장과 공동 집필한 ‘인류의 기원’이 10쇄 이상을 찍으며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한국에서도 흔치 않은 분야라서 JTBC라는 TV채널의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그가 강연자로 나서 ‘우리는 지금 진화 중?’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에서 딱부러지고 친절한 설명으로 시청자의 인기를 얻었다.

이 동문은 이어서 ‘이상희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류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됐을까’하는 청소년 대상 인류학 책을 출간해 이 분야에 대한 주목을 끌었다.

첫 책인 ‘인류의 기원’은 8개국어로 번역 및 출간했다. 영어판인 ‘Close Encounters with Humankind’(인류와의 근접 조우)는 이 박사가 1년동안 거의 다시 영어로 썼다. ‘근접 조우’는 해외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UFO)를 목격하는 사건’을 일컫는 용어다. 따라서 영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바비큐 파티를 위해서 바비큐태스크포팀이 오전부터 LA갈비를 구웠다. 왼쪽이 모원균 팀장.

어 제목은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해온 인류와의 ‘낯선 만남’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책을 쓰는데 소위 후크(hook)라고 끌어 당기는 재미를 유발하려고 던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이것을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냐’고 그럴 수가 있죠. 번역하는 것 보다는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한글과 영어판을 바탕으로 여러 외국어로 번역됐다. 대만에서 출간된 중국어판은 한글에서 중국어로, 스페니시판은 영어판에서 스페니시로, 도쿄에서 출간된 일어판은 영어판에서 번역됐다.

지난 6월30일 세상에 나온 ‘인류의 진화’는 이상희 박사가 단독으로 썼다. 그는 “첫 책은 인류학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일반 교양서였다” 면 “이번에 나온 책은 전자에 비해서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독자가 과학이라고 하면 정답이 딱 맞는 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 하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살았고 호모 에렉투스 어떻게 살

았고, 이렇게 명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독자에게 인류의 진화 뿐 아니라 연구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고인류학, 더 나아가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교정되고 있는 학문이라는 것 또한 전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 박사는 현재 UC리버사이드 인류학과 교수이고 미국과학진흥회(AAAS) 펠로다. 인류의 진화를 연구하며 다양한 독자층을 위한 글을 쓰고 있고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UC리버사이드에서는 인류학과장을 비롯해, 인문사회과학대학 부학장을 거쳐 교수의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대학 교육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국인류학회 생물인류학 부문 WW 하웰스 북 어워드, UC리버사이드의 에모리 엘리엇 북 어워드를 받았다.

**유튜브채널: www.youtube.com/channel/UC6CJmJeeMge17YofTzVcSA
**페이스북페이지: www.facebook.com/anthropology.korean/

장병희 편집위원

아프리카 기원설 사실일까?

‘인류의 기원’은 최신 고인류학이 이뤄낸 성과 중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일반인이 흥미로워 할 주제 22가지를 뽑아 친절하게 풀어 쓴 교양서다.



인류의 기원 책표지

인류 기원을 둘러싼 최근의 쟁점을 담은 이 책은 시대에 발맞춘 인류학 안내서이자 가장 새로운 교과서다.

이상희 박사는 ‘인류의 기원’에

서 인류의 진화 과정에 대해 잘못 받아 들여지고 있거나, 학문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관습적으로 인류의 진화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시작하여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일직선적인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이 과학적 지식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각각의 화석 인류에 대해 구부정한 모습에서 점차 곧게 선 모습으로 그려지는 외형에 대한 편견 역시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기에 이미 완전한 직립 보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고대인은 주로 곤충 먹었다?

고인류학, 고생물학, 고고학 등의 분야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를 파헤칠 뿐인 학문이라는 오해다. ‘인류의 진화’는 고리타분한 인식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인류의 진화 책표지

이 과정에는 치열한 논쟁이나 반론 과정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최신의 고인류학에서는 새로운 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줄리 레스닉(Julie Lesnik)의 ‘곤충식 가설’이다. 고인류가 필요로 했던 많은 열량을 ‘곤충식’에 의존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주류 가설이었던 ‘사냥 가설’로 설명되었던 수많은 시나리오가 뒤집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고인류가 ‘사냥하는 인간’에서 ‘곤충을 잡아먹는 인간’으로 바뀌는 것 이상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

동물성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남성이 사냥을 전담하고, 여성이 채집을 통해 열매 등 식물성 먹거리를 확보하거나 양육을 담당했다고 하는 경제 분업 가설이 송두리째 와해되는 것이다.

방은호(약대 42) · 김부근(의대 52) · 박원국(공대 52) · 오광동(공대 52)



지난 9월 30일 버지니아 페어옥스의 한 식당에서 열린 워싱턴DC동창회 이사회에 초청된 원로 동문들. 왼쪽부터 오광동, 박원국, 김부근, 방은호 선배와 정세근 워싱턴 DC 지부회장

“선배님들 있어 오늘의 동창회 ... 감사합니다”

워싱턴 DC

90세 넘은 원로 동문 4명, 이사회 초청

워싱턴 DC 동창회는 지난 9월30일 매우 뜻깊은 이사회를 열었다. 올해 치른 행사를 보고하고 앞으로 치를 행사를 논의하는 정례 이사회였으나 이날 모임에는 지난 5월 99세 백수를 기념한 방은호(약대 42) 대선배를 비롯해 90세 넘은 선배들이 네분이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모두 52학번 동문들로 김부근(의대) 박원국(공대) 선배는 직접 운전해 참석했고 오광동(공대) 선배는 아들, 부인과 동행했다. 오기로 약속했던 장기택(사대) 선배는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다. 워싱턴DC 동창회가 원로 선배들을 이사회에 모신 것은 올해 80세가 되는 오

인환 전 미주동창회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 달동안 워싱턴DC 지부에서는 임낙중(의대 53), 김용덕(의대 53), 변만식(사대 40) 선배 등 여러 선배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더 늦기 전에 지금껏 동창회를 지켜온 선배님들 모시고 감사의 인사를 하자는 제안이었다.
정세근(자연대 82) 워싱턴DC 지부 회장은 “지부에서 갖고 있는 동문 리스트 중 52학번 이상인 선배님이 80명쯤 되는데 있는데 그중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는 분은 30~35명 정도”라며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는데 모두 연락이 되진 않았고 그중 다섯 분이 오신다고 했

다” 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김용덕 선배님은 지난 4월 본인 보다 3년 선배인 김인국 동문을 모시고 손수 운전해 경기도 모임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떠나셨다” 며 “어르신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동창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는 뜻을 전했다” 고 말했다.
동창회는 원로 선배들에게 감사 카드와 함께 서울대 펜과 키체인을 선물했고 선배들은 후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초청해 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음악 애호가인 방은호 선배는 지난 5월 99세 백수 생일을 맞아 자신이



지난 5월 백수 생일을 맞은 방은호 선배(오른쪽)와 이를 축하하는 오인환 전 미주동창회장.

창립해 30년 넘게 이끌어온 코리안 콘서트 소사이어티가 연주하는 축하 소음 악회를 열었다.

시카고

“장학기금 ETF에 투자 ... 수여에 문제 없어”

60여명 참석한 이사회

각종 활동 보고 · 현안 검토

시카고서울대동창회가 2023년 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10월8일 삼버그 소재 골프클럽에서 열린 행사에는 60여명이 참석, 각종 동창회 활동을 보고 받고 현안을 검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차기 회장 추천이 있었는데 김승주 전 회장은 “그동안 동창회에 적극 관계한 분 중에서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경우를 물색했다”며 공대 86학번 정성일 변호사를 추천했다.
장학기금 현황은 한의일 장학위원장이 보고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캐쉬홀딩 빼고는 다 2개의 ETF에 들어가 있다”면서 “장학기금 수여에는 문제가 없으니 이게 모두 전임 회장들 및 위원들의 현명한 투자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황치룡 회장은 장학생 선발 경과를 보고하면서 “금년에는 지역 언론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총 9명 중 서류미비자 1명 빼고



지난 10월8일 삼버그 소재 골프클럽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이사회에서는 동창회 각종 활동을 보고하며 현안을 검토했다.

8명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사회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동창회 산하 단체의 활동 내역이 소개되기도 했다. 골든클럽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50명 이상 참석하고 단체여행 등 특별활동에도 20여명이 나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자랑했다.
80년대 학번 이후 모임인 관악클럽의 경우 모임 장소를 기존 공원 및 사진스튜디오에서 볼링장 및 부설식당으로 변

경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 클럽의 김동엽 회장은 조만간 LA Fitness에서 수영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동창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종문화회와 한인문화회관의 근황이 전해졌다. 문화회 박종희 사무총장은 “지난 시조대회에서는 29개국 380여명 시인들이 참여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기획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사무총장에 따르면 세종문화회는 랜싱 소재 미시간 주립대에서 글로벌코리안을 주제로 상을 받을 예정이다.
시카고한인문화회관의 김윤태 회장은 “문화회관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남, 김사직 전회장님들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덕분”이라며 거듭 사의를 표했다.
취재=봉윤식(사회대 정치학과 96)



지난 9월30일 락클랜드 레이크 주립공원에서 열린 가을 야유회. 동문 및 가족 60여 명이 모여 게임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9월엔 야유회, 10월엔 골프 ... 친목 · 단합 ‘짱!’

뉴욕

보슬비에도 동문 · 가족 등 60여명 참석 웃통 벗은 미스터 SNU 선발대회 웃음

뉴욕지부 동창회(회장 연영재)가 가을 야유회와 동창회 기금마련 골프대회를 연이어 가졌다. 지난 9월 30일 락클랜드(Rockland) 레이크 주립공원에서 동문 및 가족 60여 명이 모여 가을 야유회를 가진 데 이어, 10월 12일 브롱스 펠햄(Pelham) 골프 코스에서 진행된 골프대회에는 동문 30여 명이 참여했다.

야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비가 내렸다. 빗속을 뚫고 참석할 동문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애태우던 집행부는 동문들이 속속 도착하자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모처럼 만난 동문들도 반가움은 배가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문들은 그동안의 안부를 서로 주고 받으며 정성 가득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강병승 동문의 진행으로 즐거운 게임을 했다. 4개 조로 나뉘어 ‘이구동성’ 게임을 할 때는 각 조의 경쟁이 치열했다.

승부욕에 불탄 동문들의 기발한 답이 나오자 폭소가 터지는 등 게임 내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게임을 통해 동문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히는 시간이었다.

이날 야유회의 하이라이트는 ‘미스터



‘미스터 SNU 선발대회’ 출전 선수들

SNU 선발대회’였다. 육체미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웃통을 벗어야 하는데 과연 참여하실 동문이 계실까 싶었으나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다섯 분이나 참여해서 여가져기서 탄성과 웃음이 만발했다. 일상에서 벗어나 반가운 동문들끼리 모여 즐거움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었다.

새로운 젊은 동문들 참여한 골프대회

좋은 가을 날씨에는 ‘빛을 내서라도 골

프를 쳐야 한다’는 농담이 있지만, 청명한 가을 날씨에 개막된 골프대회는 완벽했다. 김정필(공대 71) 동문이 진행한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동문의 참여가 돋보였다.

동문회 행사에 처음 참석했다는 이지는(87) 동문, 한국이 IMF로 어려울 때, 뉴욕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나, 미국에 정착한지는 1년 정도 되었다는 손석규(상대 83) 동문, 대학에서 햄 동아리 모임을 했다는 한의사 김준식(85) 동문의 참석은 골프대회를 더욱 빛내 주었다.



연영재 회장이 참석 동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신응남 전 미주동창회장과 이희만 동문 부부.

신응남(전 미주동창회장) 동문은 “새로운 동문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분들이 뉴욕동창회의 미래 리더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자료 제공 : 뉴욕 지부〉



올해 골프대회는 청명한 가을 날씨에 젊은 동문들이 새로 참여해 행사를 빛냈다.



강병승 동문이 진행한 ‘이구동성’ 게임을 맡은 각 조 대표 동문들.



지난 10월7일 보스턴 남쪽 호튼 호수 공원에서 열린 뉴잉글랜드 동창회 가을 야유회에는 동문 및 가족 40여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만나면 좋은 친구 ... 동문 모임은 언제나 즐거워



야유회 시작에 앞서 이사회를 하고 있는 동문들.



불고기를 굽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문들.



식사 말미 비가 내려 천막을 치고 앉아 있는 동문들.



최진민 회장이 호수 주변에 식용과 약용 버섯이 많이 있다며 단체 카톡방에 찍어올린 사진.

뉴잉글랜드 지부 가을 야유회

지난 10월7일 호반 돌레길 산책로로 유명한 보스턴 남쪽 호튼 호수(Houghton's Pond Ball Park) 공원에서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공대 71) 가을 야유회가 열렸다.

동문 및 가족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야유회는 먼저 이사회를 개최한 후 서너 명씩 모습을 드러낸 동문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정겨운 풍경으로 시작됐다.

점심식사는 불고기와 돼지고기 바비큐에 한식 뷔페. 최진민 회장의 부인이 40명이 넘는 참가 동문들의 점심을 손수 준비했고 90학번 이후 동문 모임인 관악회 정해원(자연02) 회장 등 젊은 동문들이 그동안 코비드와 우중 날씨 탓에 야유회에서 맛보지 못했던 불고기를 굽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풍성하고 맛있는 점심이었다. 식사 말미에 가벼운 비가 내려 즉석 천막을 치고 우중 캠프 추억도 만들었다.

노동원 동문(공대 84)의 진행으로 뉴잉글랜드 동문들이 사랑하는 소모임 산우회와 관악회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경품권 전달식도 있었다. 경품권은 최고령 동문인 김덕순(사대50), 모정자(문리50) 동문 그리고 최연소 참여자인 김원중(공대 94) 동문의 아들에게 전달됐다. 동문들에게 풍성하고 맛있는 점심을 대접한 최 회장의 부인에게도 감사의 경품권을 선물했다.

보스턴 총영사관의 영사로 근무하는 김원중 동문은 동문과 교포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찾아줄 것을 당부했고 김용구(공대66) 동문은 시니어 동문들의 관심사인 장수와 관련, 일본의 120세 장수마을을 소개하면서 장수 비법으로 규칙적인 운동(농촌이기 때문에 밭일 등), 이웃간의 소통, 야채와 생선 위주의 식사 등 3가지를 꼽아 호응을 얻었다.

정해원 관악회장은 지난 9월23일 80여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가을 야유회가 열렸는데 젊은 동문들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동문들은 연말 송구 영신 파티에서 다시 볼 것을 약속하며 즐거운 모임을 마무리했다.

취재= 백문성(문리대65)



김덕순(사대 50) 동문이 최고령 참가자로 경품권을 받았다.



최진민 회장 부인이 풍성하고 맛있는 점심을 손수 준비했다.



정태영(문리대 71) 동문은 이날 야유회 풍경과 동문들의 인증샷을 찍어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 정 동문은 야유회 시간대 별로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원래 그런 것 안하는 사람인데 시류와 세류에 영합하게 됐다"며 "난생 처음 인증샷이라는 걸 찍어본다"고 말했다. 정 동문은 또 자신의 영화에 항상 보일듯 말듯 카메라로 출연했던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증샷을 올렸다.

군밤타령 한 자락 듣노라면 어깨가 들썩들썩



김동석
(음대 64)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은 세 박자 기준의 음악이다. 아리랑, 도라지 타령 같은 무수한 민요라든가 모든 궁중 음악 또는 판소리, 심지어 길

K문화 다음 차례는 국악 우리 가락 장단은 세 박자

거리 가면서 흥얼거리는 소리, 장터에서 물건 파는 소리까지 모두가 세 박자의 리듬과 멜로디를 갖춘 소리다.

그런데 서양 문화가 들어 오면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서양 소리, 즉 네 박자의 음악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세 박자 소리 이전에 “나비아~ 나비아~”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같은 네 박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니 세 박자의 음악은 생소하고 지루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세 박자의 기본 음악에 더불어 우리 한국음악은 숨쉬기(breathing cycle)로 음악을 조정한다.

숨의 길이에 따라서 한 소절이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는 융통성이 있는 소리인데 반해 서양음악은 심장의 소리(Heart beat), 즉 반드시 규칙에 따라야 하는 음악이다.

그래서 우리 음악은 지휘자 없이도 잘 연주되지만, 서양 음악은 지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 한국 음악을 듣고 즐기기에 어쩌면 훈련이 필요한 지도 모르겠다.

70년대 이후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보존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머리 속에 ‘국악은 우리 것, 내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금 세계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K-팝이나 K-드라마, K-푸드 등 K-문화는 모두가 순수한 우리 것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순수한 우리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 다른 재료를 가미해도 역시 우리 입에 맞는 문화로 동화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이 K 문화라고 볼 수 있다.

K국악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악이 어렵고,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기본 장단의 음악 ‘세 박자 음악’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

유튜브에 들어가 듣기 쉽고 알기 쉬운 민요부터 들어보자. 귀에 익숙한 ‘군밤타령’ ‘경복궁타령’ 같은 경기 민요 한 자락 듣고 있으면 절로 흥이 나 어깨가 들썩들썩할 것이다.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과 한국 음악 국악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감동 ... 감동 ... 감동 ... ‘동창회가 준 국악 선물’

지난 9월 30일 LA다운타운 지퍼홀(Zipper hall)에서는 서울대 음악대학 남가주 동문회(회장 김동석, 음대64)가 주최한 정기연주회 ‘한국 전통음악의 밤’ 공연이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한국 음악 국악만으로 꾸며져, 미주에서 쉽게 구경하기 힘든 공연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는 미주 국악과 출신 동문 외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상블 페이스’의 송민섭(04학번), 최소리(07), 손정민(09), 박명규(10), 김민주(12) 동문과 이번 연주를 위해 모교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판소리 전공 김소원(19) 학생이 출연해 1시간 30분 넘게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를 펼쳤다.

모든 출연자가 함께 연주한 정악 취타(만파정식지곡)의 우렁차고 씩씩한 관현 합주가 음악회의 시작을 알린 후 이어진 김민주의 신패동류 거문고 산조는 이곳에서 듣기 어려운 최고의 거문고 산조였다. 김민주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이면서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어 제 27회 동아콩쿠르 대금 금상을 수상하고 현재 국립국악원 단원으로 있는 박명규가 대금 독주로 ‘청성곡’을 연주했는데 기존의 연주자들과는 다른 젊은 해석에 청정하고도 유순한 가락으로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다음 순서는 손정민의 태평소 연곡이었다. 태평소하면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을 통해 고려때 한국에 전해진 악기로 그 음색이 크고 활달해서 군악이나 종묘 제례악, 특히 농악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악기지만 연주자가 많지 않아서 별로 연주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70년대 이후 많은 연주자에 의해서 개량되고 발전하여 현재는 모든 피리 전공자들이 이 악기를 필수로 공부하고 있다.



만파정식지곡(취타연주)을 연주하고 있다. 집박 김동석, 피리 황규상, 손정민, 대금 박명규, 최소리, 김소원, 송민섭, 김민주, 손정민.



이날 공연을 위해서 한국에서 온 동문들. 왼쪽부터 박명규, 최소리, 김소원, 송민섭, 김민주, 손정민.

남가주 음대 동창회 ‘한국 전통음악의 밤’ 미주 · 한국 동문 한 무대, 국악 · 양악 하모니

특히 손정민은 여성 연주자이면서 힘든 태평소 연주에 능해 우리 전통음악의 또 한 면목을 느끼게 했고 특히 최소리의 장고(구), 송민섭의 징과 어우러져 능계를 비롯한 풍년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 음악의 독특한 장단을 선보인 감동의 연주였다.

판소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인류 음악 중 하나다. 이날 창자인 김소원은 아직 학생이지만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전수자다.

최소리의 북장단에 맞춰 시작한 미산제 수궁가 중 ‘초 앞부터 도사다시까지’ 대목은 모든 청중을 주입새와 더불어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어 앵콜로 춘향가 중 ‘사랑가’를 연창하고 계속되는 앵콜 요청은 진행상 미뤘다. 2007년 이자람이 디즈니홀에서 열렸던 동창회 음악회에서 판소리를 처음 연주한 후, 이번이 두 번째의 판소리 연주인 셈이다.

2부에서는 국악기와 양악기가 어우러진 곡을 소개하는 순서로 송민섭이 편곡한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 중 2번’을 손정민의 생황, 박현정의 피

아노, 김원선의 첼로 3중주로 연주했다. 연주였다.

생황은 고구려 벽화와 신라 범종에 연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고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연주돼온 악기지만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재료 구하기가 힘들어 오랫동안 연주가 뜸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도 같거나 비슷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 현재는 한국에서 제작한 것과 중국에서 제작한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생황은 피리 전공자들에 의해 연주되고 있는데 한국악기로서는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기에 많은 현대 음악에 사용되고 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베이스 장진영이 나와 새로운 가곡 ‘마중’을 불렀다. 생황, 대금, 거문고,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반주로 우리의 참소리 가곡이 아닌가 싶도록 가슴에 와닿았다.

가곡은 원래 고려때부터 상류사회에서 시조를 5장으로 나눠 악기 반주에 의해 불러 오던 우리 정가 중 하나인데 근대에 와서 서양식 노래를 가곡이라고 쓰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전통 가곡과 혼

동 하고 있다.

많은 작곡가들이 아리랑과 외국 노래를 병주로 하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합창곡이다.

이번에 연주한 ‘어메이징 아리랑’은 판소리와 베이스가 어우러져 서양 것이면서 우리 것 같고 우리 것이면서도 서양 소리와 잘 어울리는 동서양의 조화를 보였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러운 소리의 화합이 역시 국악기와 양악기의 조합으로 만든 ‘한’의 한 자락이었다.

마지막으로 모두 같이 연주한 민요 연곡은 김소원의 또 다른 양악 곡인 진도 아리랑으로 끝을 맺었다.

청중들은 아쉬움으로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는데 우리 소리이기에, 우리가 한 민족이기에, 한국인인 우리의 마음과 핏속에 흐르는 흥과 멋을 되살아나게 했기 때문이었으리라.

동창회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연주회가 열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 동창회가 필요하고 자기 일 모두 제쳐놓고 동창회 일을 거두고 있는 모든 임원의 희생이 있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안겨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연주회가 여기저기 미국 땅에서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동석(음대 64 · 국악이론전공)

청명한 가을 날씨, 마음 맞는 동문들과 “나이스 샷”

가을 야유회와 골프대회는 각 지부 서울대 동창회의 가장 큰 연례 행사들이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바람은 시원하고 마음 맞는 동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니 ‘동창회 가

을 골프는 빠져서는 안되는 모임’이라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듯하다. 미시간, 북가주, 필라델피아 지부의 가을 골프대회를 사진으로 소개한다.



필라델피아 시니어 우승팀의 네 분이 18홀에서 퍼팅을 성공시킨후 기뻐하고 있다.



근접상을 받은 북가주 동문들이 신응남 전 미주동창회장이 후원한 볼 리트리버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지난9월23일 마운틴 뷰 쇼라인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대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함께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다.



미시간지부 창립 처음으로 지난9월23일 동창회 골프대회가 열려 동문과 가족 20여명이 친선 게임을 즐겼다.



지난 10월 10일 벅스 클럽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지부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친목 골프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필라델피아 지부

지난 10월 10일 화요일 벅스(The Bucks) Club 에서 필라델피아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가 있었다. 이종태 전 회장과 이흥일 동문이 오전 10시쯤 동창회 배너를 골프장 가제보에 거는 것으로 준비를 시작해 심희진 회장이 참여 동문들의 점심을 책임질 김밥과 간식을 픽업해 왔고, 등록을 시작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연습도 하고 카트에 짐도 싣다 보니 금새 Tee Off 할 시간이 되었다.

민흥식, 지흥민, 조화연, 전무식, 주기목, 이흥일, 이상준 부부, 전방남 부부, 이종태 부부 등 평소보다 좀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전 내내 흐리던 하늘이 빗방울을 쏟아내어 좀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오후에 개어서 진행에 어려움 없이 대회가 잘 끝났다. 대회를 마치고 다같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나누며 모임을 마무리지었다.

심희진(음대90 · 필라델피아 지부 회장)

미시간 지부

2021년 11월 미시간 서울대 동창회를 발족하고 처음으로 동문 골프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23일(토)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브라이언에 있는 휴런 메도우즈(Huron Meadows) 골프 코스에서 열린 제1회 골프대회에는 동문 및 가족 20여명이 참가해 친선 게임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경기는 시니어 2팀과 주니어 3팀으로 나뉘어 scramble 포맷으로 진행됐다. 골프 후에는 저녁식사와 시상식을 가졌고, 추석을 맞아 임원들이 준비한 떡도 함께 나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트로이, 이스트 랜싱, 노바이 지역 뿐만 아니라 앤아버에서도 안유신(공대 81), 정재학(공대 83), 최재환(공대 84), 정도회(공대 85) 등 네 동문이 참가해 향후 앤아버 지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승팀과 개인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시니어 우승: 안제모(약학 61), 안성숙(Mrs. 안제모), 이성길(의대 71 졸업), 송원옥(보건대학원 73)

▶주니어 우승: 한숙영(문리대 70), 이호정(음대 81), 한영신(가정대 86), 최명동(사범대 대학원 98)

▶장타상: 최재환(공대 84), 안성숙(Mrs. 안제모),

▶근접상: 정도회(공대 85), 이성길(의대 71 졸업)

주니어 우승팀의 최명동 동문은 16번 홀(파4)에서 Eagle을 기록해 특별상을 받았다.

이광진(공대 81 · 미시간 지부 회장)

북가주 지부

북가주서울대학교 동문회 골프대회가 지난 9월 23일 마운틴 뷰에 있는 쇼라인(Shorelin) 골프장에서 열려 40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골프대회를 위해 16 명의 동문들이 홀 스폰서로 나서 재정 지원을 했는데 특히 윤두섭(상대 58) 동문이 10 개 홀을 스폰서 해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공대 49학번인 한만섭 동문이 참석해 노익장을 과시해 모든 동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참여 동문들은 대회를 마치고 골프장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시상식과 함께 뒷풀이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최경선(농대65 · 북가주 지부 회장)

전통 상실로 큰 혼란 ... 한국형 민주·자본주의 찾아야

이번 SNU포럼은 지난 10월14일 줌으로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워싱턴대학교 한국학 석좌교수이며 한국학센터 소장인 하용출(외교) 박사가 강사로 나서 '전통 실종의 한국사회: 관광상품화된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하용출 교수는 모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21년간 후학을 양성하고 2008년 워싱턴주립대 한국학 센터에 석좌 교수로 초빙돼 왔으며 올해부터 소렌슨 박사를 이어서 한국학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하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내 소련학을 보급하기 위해 모교에 소련연구소도 세우고 한소 수교 관계에도 관여를 했다. 그는 원래 21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했고 사무원 생활을 4~5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미국에 유학와서 석사 학위는 켄트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는 UC버클리에서 취득했다.

그는 이미 잘 알려진 다른 나라의 연구를 비교하는 것으로 한국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를 일본, 중국, 한국을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유럽 및 이탈리아의 가족 문제 또는 독일의 바이마르 정권하에서 혼란상, 폴란드와 혁명 이후에 수만 명이 죽고 100년 이상 걸려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을 연결해서 워싱턴 대에서 한국학의 정체성을 학문적 정체성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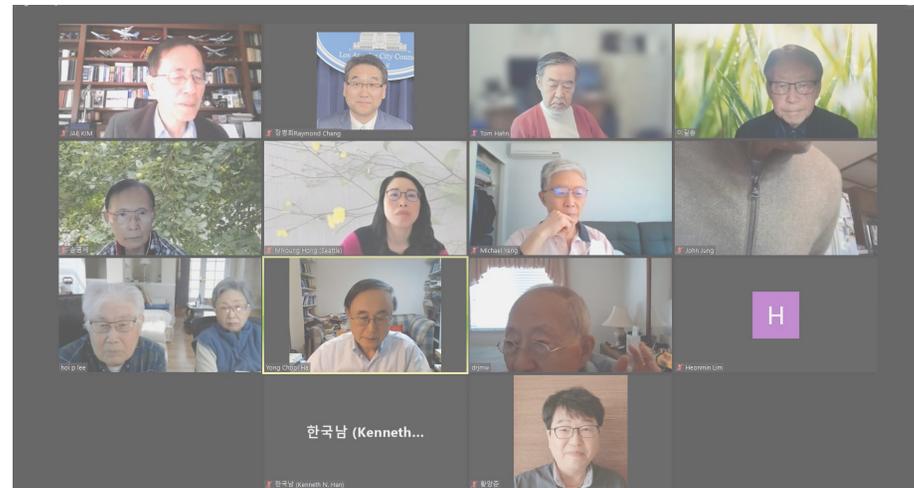
그는 “내년 초에 나올 책은 한국이 산업화를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흔히 칼 막스나 미국식 사회과학 등으로는 한국 사회를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독특한 다른 성격을 갖게 됐느냐에 관심을 두고 책을 썼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관심을 갖게 된 내용 중 하나가 전통이다. 왜 후발 산업화에서는 전통이 개입되느냐 오히려 서양 학문에서는 전통이라는 것을 근대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항상 근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해가 되어 왔다”며 “하지만 오히려 한국 사회를 볼 때 전통이라고 하는 요소가 한국 사회 경제 발전을 갖다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발전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상당히 독특한 사회 구조가 생겼다”는 주장을 하며 “그런 관점에서 좀 연결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하 박사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현재의 문제를 전통이 실종된 것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현재 걸보기에는 옛날과 엄청나게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눈부시게 변한 건 사실인데 아직도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혼란스럽고 갈등적인 요소도 있고 예측이 불가

10월 SNU포럼 하용출 박사 초청 강연



지난 10월14일 SNU포럼이 줌미팅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싱턴대 석좌교수인 하용출 동문이 전통이 상실돼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몇가지 해결방안을 내놨다. [세미나 캡처]

외부 강요된 변화로 큰 혼란 야기돼 국민 합의로 한국형 해결책 이끌어야

능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 박사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전통이 실종되고 전통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한 데서 왔다”고 한국 사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혼란의 한국사회

한국사회의 대혼란은 여러 가지 원인과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일제 강점 기간은 한국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 기간에는 단순한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착취와 발전이 주요한 특징이었는데, 이러한 식민지 역사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민 시대의 법률과 관습이 현재까지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식민지 통치로 양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전통 관련 주요 주체 세력 또한 상실되었다.

두 번째로, 국가주도형 산업화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국가 주도로 진행된 산업화는 경제를 빨리 성장시켰지만 독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중산층은 다른 서구 국가의 중산층과 달리 상당히 국가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며, 재벌과 고위직군이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동과 태도와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로, 외환위기와 세계화로 인해 개혁이 강요되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서구의 제도가 한국 사회에 도입되었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제도와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국제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을 겪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정체성 위기와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대혼란은 부정적인가

한국사회는 현재 방향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가끔씩 볼 때는 빠르게 변화를 겪어왔고 대규모 변화의 영향 아래에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최근 역사는 외부 영향을 받아 움직이던 역사에서 스스로를 위상화하고 외부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거나 방어적으로 제어하는 능력을 갖춘 역사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혼란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혼란과 전통상실

전통상실의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소송 수의 증가: 한국은 인구 대비 일본의 6배 이상의 소송 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소송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자정 능력 상실: 한국 사회의 자정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이 상실되었으며, 김영란법과 같은 제도가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지나, 실제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된다. 3. 교권 추락: 군사부일체 사상에서 선생을 폭행하고 선생이 자살하는 상황은 대단히 비극적이며, 선생의 대우와 보호가 부족한 상황을 나타낸다. 4. 노조의 재벌화와 혼란: 한국의 노조가 재벌화되어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대 갈등과 권위관계의 혼돈도

두드러지는 문제다. 5. 개인주의 대 사육주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실되면서 개인주의와 소비욕구 중심의 사회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미래를 고려할 때, 혼란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다. 이 혼란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변화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 사회를 비교적 독특한 경우로 보는 사람도 많다. 이것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로, 민주화도 금방 일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과학에서도 민주화를 다루는데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민주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한국 사회에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서구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문화와의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는 노사 관계에도 적용된다. 대통령, 노사, 국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대외 충격에 대비하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다. 현재 한국은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이 부족하고, 국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 복지와 소득 분배의 선제적 대응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세대 갈등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젊은 세대와 부모 간의 소통이 부족하며, 전통적 가치가 상실되어 얘기할 주제가 부족하다. 이는 결혼과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혼란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장병희 편집위원

- ▶ 약력
- ▶ (현) 워싱턴대학교 한국학 석좌교수, 한국학연구소 소장
- ▶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 UC 버클리 정치학 박사
- ▶ 제 10회 행정고시 합격 - 상공부 사무관
- ▶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국제문제연구소장, 통일포럼 위원장
- ▶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간호대 59학번 동기 32명과 남해 여행



이종묘
(간호대 69)

우리 69학번 친구들은 미국에서 19명 (남편 5명 포함)을 비롯해 한국, 뉴질랜드 등 각국에서 모여든 50여 명이 지난 10월12일 간호대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를 마치고 그 중 6명이 15일 열린 홈커밍데이에 참석했다. 유희림 총장이 베푼 오찬에 참석해 응송한 대접을 받고 관악 캠퍼스 투어를 하며 발전한 서울대학 모습에 감명 받았고 지금 후배들은 참 행복하다 생각했다.

세계에서 이렇게 큰 캠퍼스를 가진 학교가 몇이나 될까 생각하니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특히 미국에서 열심히 생활해온 우리 69학번 간호대 졸업생들의 성실한 가정 생활과 간호 각계에서 근무하며 열심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특히 기념행사 후 동기 32명(남편 6명)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과거

와 즐거웠던 과거를 모두 돌아보며 오늘에 더욱 감사해 했다. 남해여행, 순천만 국가정원, 여수, 거제도,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 회담이 열렸던 부산 동백섬, 양산 통도사 등을 돌아보며 우뚝 선 한국의 위상에 많이 감탄했다. 최고의 호텔,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3박4일의 여정을 마치니 내 인생의 또 다른 뿌리인 서울대 가족이라는 것에 더욱 감사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기적들



황효숙
(사대 65)

수욕장을 넘어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었다한다. 매년 국제적으로 유명한 보령머드축제 가 열리는 곳이기도하다. 드넓은 대천해수욕장을 바라보며 해변을 산책할 때 아련함과 행복이 어우러진 옛 추억이 되살아음을 느꼈다.

다음 행선지는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 77번 국도의 일부로서 6.9km의 국내 최장이다. 시속 약 35 마일로 운행하며 U turn하여 해저터널을 두번이나 통과하는 재미를 즐겼다. 군산으로 이동하여 곡창지대의 면모를 간직한 황금빛의 호남평야와 염전과 잘 정리된 각종 농원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모두들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믿음직스러웠고 대한민국이 이루어 놓은 기적적 발전을 원동력이 되었음을 다시금 체감하게 되었다.

다음 관광지는 전북 부안군 대항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잇는 초대형 독 "새만금방조제".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합쳐 금만평야로 일컬어 왔고 이곳에 바다를 메운 새로운 땅이 생긴다하여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앞에 "새"자를 붙여 "새만금"이라 부르게 되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1991년 공사를 시작하여 2050년도에 조성완료 예정인데 서울의 2/3크기의 땅이다. 전북인의 한과 혼으로 이루어낸 대역사로서 도로, 항만철도, 국제공항, 재생에너지 등 각종 새로운 사업과 도시가 들어서고 있다.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2010년에 완공된 새만금방조제 준공을 기념하여 기념탑 "약속의 터전"이 세워졌다.

자연, 인간,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뤄 미래를 향해 약진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웅장한 기념탑의 크기와 디테일에서 방조제를 건설한 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느껴져 깊은 인상을 받은 곳이다.

5시30분경 "해변촌탈아리굴"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식당에서 서해바다의 대표음식인 꽃게 간장게장 과 백합죽을 맛있게 먹고 소노벨 변산호텔에서 투어 첫날의 여장을 풀었다.

"서울대 남편 덕분에..."



에마 오 (오홍조 동문 부인 · 사진가)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로 온천지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소나무. 맑고 밝은 정기가 흐르고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다.

아마도 이 소나무들은 10여 년 전 보다 열매는 늘어난 것 같다.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 정기를 주어 미래를 이끌어 간다면 세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젊은이들이 이 훌륭한 여건 속에서 아이도 많이 낳아 머리 좋고 정직하게 잘 키워 우리 조국의 향기 머금으며 자라면 훌륭한 세계 제일의 인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홈커밍 서울대 방문은 나에게 큰 배움이며 행운이다 자랑스런 서울대를 나온 나의 남편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며칠동안 같이 여행한 여러분들의 예의 있는 우정에 감사 드린다.

"모교 위한 더 많은 후원 생각"



김경무 (공대 69)

재학 중 군대에 갔다가 복학하여 1974년 1년을 관악캠퍼스에서 공부하고 49년 만에 가 보니 옛날 구 도서관과 본

관 자연대 건물 한두개, 인문대 건물 몇동이었던 것이 지금은 수없이 많은 건물이 숲속 곳곳이 자리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상보다 더 발전된 모교를 보고 감탄을 하고 금치 못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서울대 도서관을 속속들이 투어를 하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을 보며 너무 홈커밍데이 행사 때 미국 남가주 동창회장이나 나와 덕담을 하고 경품권을 뽑으라고 하여 앞으로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한류를 이끌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덕담을 하면서 모교를 위해 더 많은 후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총리 부인이 된 서울대 제자



민홍기 (문리대 61)

한덕수 총리 부부의 초청을 받아 멀리 경기도 평택에서 전철을 타고 두시간만에 왔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서 공관 입구

를 보니 완전히 관광지여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그런데 총리 공관 바로 옆에 사람 줄이 한 50m 서 있어서 무언가 했더니 수제비를 파는 식당이었다. 한 총리 부인과 저는 서울대 사제지간이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점심 식사가 바로 그 수제비 집에서 특별 배달한 수제비라고 했다.

6.25 전쟁 때 피란 가서 먹을게 없어서 구호 양곡으로 나오는 밀가루로 수제비를 너무 많이 만들어 먹어서인지 맛이 없었다. 그러나 살갑게 맞아준 한 총리 부인 최아영(미대 67학번) 여사께 감사드립니다.

홈커밍데이 전야제와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행사의 여운이 아직도 감도는 가운데 오늘은 미주동문팀의 3박4일 서해맛집투어의 첫날이다.

아침 8시30분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27명의 동문팀이 모였다. 내가 이용한 지하철 3호선은 만원을 이루었고 정거장 마다 타고 내리는 인파들로 봄버 옛날 만원 버스 타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두시간여를 달려 충남예산 수덕사에 도착하였다. 대한 불교 조계종 사찰중 하나인 수덕사는 백제후기 위덕왕때 창건된것으로 전해진다. 무시무시한 사천왕이 있는 사천왕문을 지나 40여개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수덕사의 경내가 눈앞에 펼쳐졌다.

수덕사 안을 걸으며 1308년 고려 충렬왕때 건축했다는 대웅전에 다 달았다. 석가모니 불상을 모셔 놓은 국보 제49호 대웅전은 단청을 입히지 않아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에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아름다운 목조건물이었다.

구름한점 없는 천상의 날씨에 대웅전에서 바라 보는 경관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지 없었다. 수덕사 근처 "약선공양관"이란 맛집에서 점심을 즐겼다.약이 된다는 담백하고 향긋한 능이버섯전골, 산선하고 상큼한 더덕무침과 희귀한 각종나물 맛의 향연이었다.

점심 식사 후 세계 5번째 최장길이의 보령해저터널이 있는 보령으로 향했다. 도로변에는 황금색 벼가 출렁거리는 곳과 벌써 경작된 곳이 섞여있어 추수의 계절임을 알 수 있었다.

한시간 반만에 충남 보령시 서쪽 해안에 위치한 대천해수욕장에 도달했다.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로 한때는 해운대해

눈도 입도 마음도 즐거웠던 행복한 모교 나들이



서해 맛집 탐방에 나선 미주 동문들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로 알려진 영광 범성포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범성포는 맛난 밥반찬, 굴비의 산지로 이름이 높다.



27인승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해 여행을 하는 이상강 미주동창회장과 김경숙 사무총장 부부, 박종수 미주동창회 고문 부부.



14일 홈커밍데이에 전야제 음악회가 강남구 소재 삼익아트홀에서 금난새 동문 지휘로 열렸다. 행사를 마치고 미주 방문단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 3번째가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유홍림 모교 총장, 김중섭 총동창회장.



15일 유홍림 총장의 초청으로 열린 미주 동문과의 오찬 모임 모습에서 참석자들이 행사 참가자 소개를 듣고 있다.



이번 홈커밍데이에 참가한 미주 방문단 중 여성 참가자들이 모여 단풍이 절정인 모교 캠퍼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종로구 삼청동 소재 총장 공관을 방문한 미주 방문단이 한덕수 총리 부인인 최아영(녹색 상의) 여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간호대 69학번 동문들이 졸업 50주년 기념식과 홈커밍데이 행사를 마치고 떠난 남해 여행지 거제도에서 우의를 다지고 있다. 미국에서 간 19명을 포함해 한국과 뉴질랜드 등에서 모여든 동문 32명(남편 6명)이 함께 떠난 동기여행은 옛날 얘기 수다가 끝이 없었고 순천만과 여수, 거제도, 부산, 양산을 돌아보며 한국의 우뚝 선 위상에 놀라기도 했다.



10년도 넘게 매년 홈커밍 데이에 참석한 민홍기(문리대 61), 김주환(간호대 61) 동문 부부. 2017년에는 행운권이 당첨되어서 경품으로 탄 자동차를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기증했다.

80년 전 러브레터 75통에 담은 애뜻한 사랑

30여년 전 작고한 광종기 동문 손녀, 조부모 유품정리 중 발견

일본어 섞어 쓴 편지

일제 · 군정 · 한국전 시대 투영

얼마 전 LA중앙일보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실렸다. 1928년생으로 서울대에 입학하고 1990년 미국에 이민왔다 세상을 뜬 광종기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나는 80년 전 러브레터를 소개하는 손녀에 대한 얘기였다. 확인하지는 못했다.

언제 서울대 무슨 단과대에 입학했는지. 하지만 그 암울했던 일제 시절에도 서울대생들은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 쓴 로맨틱한 편지를 나눴었구나 하는 놀라움에 LA 중앙일보 기사와 사진을 전제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손녀 자넷 광(40·샌디에이고)씨는 옷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박스 하나를 열어보고선 깜짝 놀랐다.

내용물은 노랗게 빛바랜 편지 75통.

대부분이 30여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연애 시절 할머니에게 보낸 연애편지들이었다.

대구에 살며 1928년생 옆집 사는 동갑내기 친구로 만나 연인이 된 광씨의 조부모는 할아버지가 서울대학교로 진학해 서로 떨어지게 되면서 편지를 주고받았다. 1943년에 시작된 연애편지는 그 뒤로 무려 10년이나 이어졌다.

당시는 황민화 정책이 추진되며 자유가 억압받던 시기였다. 경북여고를 다녔던 할머니는 총동원 체제 때 강제 동원돼 근로 활동을 해야 했다.

또 언어가 통제된 탓에 할아버지의 편지도 대부분 일본어로 쓰였다. 하지만 편지 속 한국의 서정적 정서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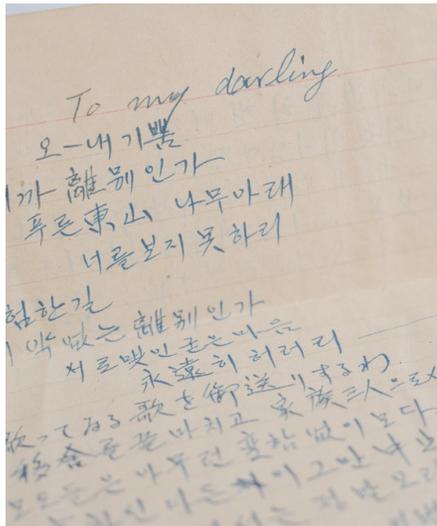
광씨는 “할아버지는 당대 한국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인용해 할머니에게 사랑 고백을 전하는 로맨티스트였다”며 “미군정 시기에 들어서부터는 편지의 서두는 항상 ‘To my darling’으로 시작했고 ‘You’re my sunshine, you’re my higher love’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다.

편지들을 발견한 후에 한자와 일본어가 많아 해석 도움을 받고자 SNS에 올렸는데 많은 분이 할아버지의 낭만적인 시적 표현들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광씨는 이어 “아름다운 내용도 많지만, 당시 위태로웠던 시대적 상황도 적



1953년 따뜻하게 웃는 가족 사이에서 서양식 춤을 선보이고 있는 조부모의 결혼식 사진. [자넷 광씨 제공]



자넷 광씨가 공개한 80년 전 연애편지들.



1953년 따뜻하게 웃는 가족 사이에서 서양식 춤을 선보이고 있는 조부모의 결혼식 사진. [자넷 광씨 제공]

나라하게 담겼다. 북한이 서울을 침공했을 때 할아버지는 아는 사람을 통해 어렵게 편지를 전달하며 급박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현실에 불안해하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대구 집에 있던 감나무 얘기를 자주 하시며 함께 꾸러나갈 밝은 미래를 약속하셨다”고 말했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할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한 후 대구에 돌아가 할머니

와 결혼을 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두 아들을 낳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990년쯤 둘째 아들의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다. 하지만 얼마 안 되어 할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손녀 광씨는 그 시절 할아버지 광종기씨와 할머니 정영숙씨의 사랑 이야기의 발자취를 찾아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이다.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택과 편지 속 나오는 장소들을 찾아가는데 일

본강점기 때 주소이기 때문에 현재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지 중구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광씨는 “자유를 억압받던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시절에도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한국을 다녀와 갤러리 전시나 책 출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원고 모집합니다

글의 양 500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snuaausa17@gmail.com

미주 동창회는 미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29개 지역 동창회의 연합체입니다. 각 지역 동문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동창회보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서울대인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미주 동창회의 사명입니다. 알리고 싶은 얘기는 주저 없이 보내주세요. 지역 소식은 물론 화제의 동문, 원로 초대석, 나의 건강 비결, 취미, 여행기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소설·신화로 설명하니 경제학 입문서가 술술 윤기향 동문, 영문 서적 'Using Poetry for Economic Analysis' 출간



윤기향
(법대 65)

플로리다 윤기향(법대 65) 동문이 최근 영국 유수의 학술서적 출판사인 캠브리지 스콜라(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출판사에서 경제 이슈를 시와 소설, 신화와 회화를 인용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쓴 영문 서적 'Using Poetry for Economic Analysis: Economics Meets Literature' (621페이지)를 출간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FAU) 경제학 교수를 지낸 윤 동문은 지난 2016년 한국의 김영사에서 '시가 있는 경제학'을 출간해 호평과 함께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시가 있는 경제학'이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 시와 소설, 영화, 가요들을 인용해 한국의 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췄

영국 유수의 캠브리지 스콜라스 출판사서 펴 내 미중 갈등·팬데믹 이후 경제 등 알게 쉽게 설명

다면 이번에 낸 'Using Poetry for Economic Analysis'는 세계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이슈들을 영미시, 그리스 신화, 마르크 사갈의 회화 등을 설명한다. 책에 실린 영미 시는 무려 30편에 달한다.

윤 동문이 아주 특별한 경제학 입문서를 쓰기로 한 것은 경제학이 경제학 전공자들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경제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윤 동문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어렵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술술 읽히는 경제학을 쓸 수 없을까 고민하다 문학과 연결시켜 설명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책을 쓰게 됐다"며 "아름다운 영어, 술술 읽히는 영어로 경제학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가령,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을 논의하는 챕터에서는 '투키디데스의 함



정'을 인용해 미중 양국의 전쟁 가능성을 살펴본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함은 아테네 출신 장군이자 역사가였던 투키디데스가 편찬한 역사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제기한 아테네와 스파르타, 친구 세력간의 갈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현대에 적용해 신흥 강국인 중국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견제를 받게 되며 결국 양국의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갈의 회화 '나의 마을'과 김춘수의 시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을 소개하면서 세계 경제가 3월 사갈의 마을

에 내리는 눈처럼 찬바람을 맞게 되었으나 3월에 내리는 눈이 그 해에 더 많은 수확을 가져오는 서설이 되듯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찬바람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체질을 더욱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경제는 윤동문이 평생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분야이니 어떤 이슈에 대해 설명해도 놀랍지 않았으나 책을 통해 보여준 그의 풍부한 인문학적 교양에는 감탄했고 궁금증을 자아냈다.

윤 동문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5학년때 (1956년) 제가 주도해 학교 신문을 발행했다.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소설 '괴도 루팡'을 연재하고 만화도 싣고 면 소재 관공서 출입기자까지 임명해 관련 소식을 실었다"며 "지금 생각해 봐도 그 시골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했는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말해 사회문제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음을 엿보게 했다.

윤 동문의 'Using Poetry for Economic Analysis'는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인류 문화 문명의 어머니”

고등학교 시절 점심을 나누어 먹던 절친한 친구가 20여 년 전 한국에서 간 종양을 치료하는 의술이 없어서 세상을 떠났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이 간암이던 시절이었다.

10여 년 전에는 나의 간 안에 종양이 나타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혜원 선배님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보너스 일 수도 있는 10여 년의 세월, 이제 내 나이 80 후반에 이르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가 해야 할 남은 생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90세 넘은 이모님은 지금도 새벽에 눈을 뜨면 누워서 하는 운동부터 하신다. 100세 넘은 김형석 교수는 지금도 본인의 지식을 후세들과 나누며 삶의 보람을 즐긴다.

1963년 서울 남대문 중수공사를 마치고 남대문과 약속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반세기 넘도록 공부한 지식을 동문들과 나누고 싶다.

한반도에 우리 선조가 보금자리 친 유적은 5만 년 전이고 유전인자의 기록에도 인류의 발자국이 동아시아에 나타난 것은 5만 년 전이다. 지구는 아직 빙하기였기에 2만 년 전까지 유럽과 북미대륙은 얼음 아래 깔려있었다.

한반도 민족은 5만 년 전부터 생활

영문 책 'Civilization begins in East Asia' 출간 50년 넘는 연구 결실... “세계에 알리고 싶어”

을 시작하였고 유럽의 백인들은 2만 년 이후부터 생활을 시작하였다. 한반도 민족은 일찍부터 4계절을 맞아 겨울에 생존방법을 찾아 농사짓기 시작하였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길러서 가을에 거두어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한반도 영산강 나주평야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자연에 도전하여 겨울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 인구가 성장하여 한반도 북방으로 이주하였고 만주 요하와 일본열도에 이주했다. 이때 한반도 문화는 음양과 오행에서 시작하였다.

오늘날 세계 인류의 일주일이 일월화수목금토로 이루어짐이 한반도의 음양오행 사상의 해달불물나무금속흙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만주의 석탄불에서 금속도구의 발명은 인류의 문명에 혁명을 일으켰다. 만주의 흥산 문화는 인류문명의 시작이었음을 역사학계에서 모두가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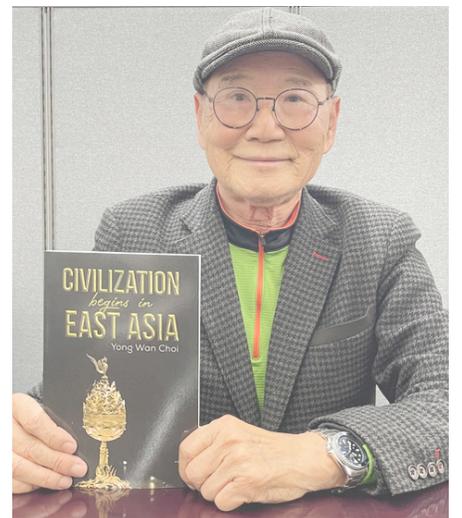
한반도 민족이 만주에서 자라는 말

들을 가정에서 기르고 석탄불에서 만들어낸 금속도구와 무기들을 갖추어 흉노민족(Huns)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무기와 유동성은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세계 각 대륙에 이르렀다. 농사짓고 유목생활도 하는 문화가 지중해 지역에선 이집트와 그리스문화를 유발하고 미 대륙의 중미에선 마야와 아스텍 문화를 촉발시켰했다. 남미대륙의 페루문명도 이때부터다.

최근에 필자가 남미 페루의 농가를 방문했을 때 소가 끄는 쟁기와 멧돌, 절구, 채, 방앗간에 디딜방아까지 한반도 우리 선조의 농기구들을 보았다. 지중해 그리스의 석조 건축 양식이 우리 선조의 목조 건축임을 보았다. 한반도 민족이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시작한 근거를 세계 각 지역에서 볼 수 있었다.

1961년에 쓴 나의 대학 졸업논문은 한국 건축양식에 관한 이야기였다. 김정수 교수님은 나와 남대문의 인연을 맺어주었다.

서울 남대문과 약속하고 반세기 넘게 연구한 내용을 2020년 '동아시아는



최용완 동문이 자신의 영문 저서 'Civilization begins in East Asi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류 문명문화의 어머니'란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였다. 같은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 지난 6월 'Civilization begins in East Asia'라는 제목으로 영국 런던에 있는 오스틴 맥컬리(Austin Macauley Publishers) 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우리 선조가 한반도에서 시작한 인류 문화문명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내 남은 생의 사명으로 알고 오늘도 나는 동문들에게 그 얘기를 전한다.

 한영신의 헬스푸드(11)

무병장수 비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쓴 식생활 건강 칼럼이 어느덧 10편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쓰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싶었는데 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내 쓰다 보니 생각보다 한달이 금방 찾아온다. 특히 균형된 바른 식생활을 안내하고 싶은 마음에 한 음식을 주제로 하는 글은 지양하다보니 주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좀 쉬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 칼럼 글이 도움되었다는 대선배님들의 말이 여기지기서 들려왔다. “그래?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면 다시 기운을 차려보아야지...”

지식을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식생활은 실천이 더 어렵다. 자신만의 입맛이 있고,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식생활이 몸에 배인 사람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글은 지금까지 실었던 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 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한다.

1. 10시에 자고, 야식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실천을 잘 하고 계신가요?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는 젊어지는 호르

몬인 성장 호르몬 분비를 높여요. 한국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키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크겠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은 어린이는 키가 크지 않고, 열심히 실천한 어린이는 키가 많이 커진 어찌면 당연한 그러나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지겠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안했다면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먼저 실천하세요.

2. 꼭꼭 씹어서 드시나요?

씹는 것은 뇌기능 유지에 중요하고, 더불어 소화도 잘됩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 서울대 치대 학장을 지내신 선배님을 뵈었는데 씹지 않으면 뇌 혈류량이 20%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혈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뇌에 산소와 에너지가 적게 간다는 것이고 결국 뇌활동이 저하되지요. 씹기를 안 하면 지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하셔요.

3. 물은 충분히 드시나요?

하루 4-5잔의 물을 드실 것을 권해드렸어요. 물 먹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침이



부족해 먹기 힘들고, 눈물이 부족해 뻑뻑해지고, 피부도 푸석하고 등등 큰 불편함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함을 줍니다. 물을 너무 안 먹으면 탈수 현상으로 피곤함을 느끼는데 원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4. 식사 때 곡류, 단백질류, 채소류 식품의 비율을 잘 맞추어 드시나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설명을 해드렸으나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풀무원에서 1:1:2 먹기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따라하면 좀더 쉽

게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립잡아 곡류1, 단백질 류1, 채소류2의 비율로 한끼 식사를 구성하는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밥 반공기, 밥과 비슷한 정도의 단백질 식품, 밥 두배 정도의 채소를 먹으면 건강하고 살도 안찌는 식사가 됩니다. 실천이 어려우면 1:1:2를 기본으로 하고 자신에게 맞게 변형을 해보세요.

5. 견과류는 잘 드시나요?

하루 10-15알 정도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견과류를 단백질 식품으로 먹는 편입니다. 견과류를 드시면 식사시간에 드시는 단백질 식품이 좀 줄어들어도 됩니다.

6. 영양제는 식사가 부족하다 싶을 때 가끔 드시고, 매일 드시고 싶다면 권장량보다 낮은 함량의 영양제를 드세요. 식사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 권장량을 채우면 영양 과다가 됩니다. 여러가지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한번에 드시지 마시고 돌려가면서 드세요.

위와 같이 매일 실천만 하신다면, 무병장수 하실거예요~.

〈식품영양학 박사〉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국서 ‘맨발 걷기’ 열풍
신애라 등 연예인들 ‘열심’
페스티벌에 3천명 인파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걷는 ‘맨발 걷기’가 한국에서 열풍이다. 서울을 비롯해 화성, 전주, 세종, 포항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거나 통과시켰고 지난 8월19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열린 ‘오감만족 2023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에는 3000명의 인파가 몰렸다.

최근에는 공원이나 산에서도 모래나 황토 등으로 조성된 맨발 걷기 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맨발로 걸으며 운동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어싱족(땅에 닿는 의미로 earthing)’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특히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족을 마다하지 않았던 탤런트 신애라, 차인표 부부가 최근 함께



탤런트 신애라, 차인표 부부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발을 공개하고 있다.

맨발 걷기를 하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신애라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며 남편 따라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최근 글로벌로 빅히트한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무빙’의 주연 배우 유승룡도 “아내랑 맨발 걷기에 빠져 있다. 촬영장에서 계속 전파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취미”라며 맨발 걷기 열풍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 이제 한국 어디나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맨발 걷기를 건강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보다 맨발로 걸을 때 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경북대 연구팀은 남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맨발 그룹과 운동화 그룹으로 나눠 주 4회, 회당 40분간, 총 12주 동안 걷기 운동을 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된 부분은 복부둘레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신체 하중이 발바닥에 분포한 신경반사구, 림프체계, 신경말단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며 운동 효과가 더 커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맨발로 걸을 때 발과 발목의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도 운동 효과가 증대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맨발 걷기는 우울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며 걷는 것 자체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지만 휴과 작은 자갈 위를 맨발로 걸으면 더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다.

특히 흙의 독특한 향취를 자아내는 지

오스민(Geosmin)이라는 물질은 초조함과 불안감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을 줘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 뇌의 이완도와 집중도는 높아지지만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부상 위험이 있는 시멘트, 아스팔트, 우레탄 길이나 숲이나 공원에 조성된 흙길을 걷도록 한다. 과산풍에 대비해 미리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맨발 걷기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당뇨병과 족저근막염, 관절염 환자 등이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는 발에 난 작은 상처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염증과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족저근막염과 관절염이 있다면 발과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것이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진 노인이나 발에 무좀, 습진 등 피부병이 있는 사람도 맨발 걷기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은 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 간단 참여신청서 *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america@snu.ac.kr 으로 보내주세요.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성명: _____ 연락처(이메일):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 +1-212-768-9144 F. +1-212-768-4494 E.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 +1-213-435-1974 E.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 +82-2-871-8004 E. snuf@snu.ac.kr

뭉쳐서 일낸다...300여 동문 투자자 · 창업자

창업지원단 내 사무국 설치 초대 회장에 송은강 동문

모교는 10월 5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23 서울대학교 동문창업네트워크'를 개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행사로 동문·재학생·교원 창업자와 벤처캐피탈 대표 등 투자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모교 유흥림 총장, 김재영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권오현 SNU홀딩스 이사회 의장, 서동규 SNU홀딩스 대표, 목승환 서울대기술주회사 대표, 민동주 창업지원단장 등 학내 창업 관련 조직 보직자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최규남 사장, 발전재단 김기현 부이사장, 관악경제인회 이승무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유흥림 총장은 "서울대학교 창업지원기금(SNU LEAP) 모금을 조성했고, 이 자리에서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서울대 동문창업네트워크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사무국 설립은 동문창업네트워크 초



기부터 계획된 것으로, 회원 확보 및 관리와 소식지 발송, 연 1회 여는 동문창업네트워크 외에도 포럼과 세미나 개최를 주관한다. 모교는 우선 창업지원단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무국 설립을 추진할 운영진도 이날 선출했다. 서울대 동문네트워크 회장에 송은강(계산통계82-86 · 사진) 캡스톤파트너스 대표가, 부회장은 창업 회원을 대표해 류정원(물리97-01) 힐세리온 대표가 추대됐다. 송은강 초대 회장은 동문창업네트워크를 설립 초기부터 다방면으로 지원했고, 벤처캐피탈 대표로서 당근마켓·직방·두나무·오늘

의집 등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 과감히 투자해 '스타트업계의 키다리 아저씨'로도 불렸다.

송 회장은 "서울대에 창업을 했거나 준비하는 학생, 교원 등이 굉장히 많다. 벤처캐피탈에 있는 선배들이 모교와 협업해서 동문 창업 기업의 정보를 VC나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동문창업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동문 창업자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졌다. 미래와 소프트웨어 재단의 이상현 KCC 부회장,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정성인 프리미어파트너스 대표, 지성배 IMM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소속된 서울대 상대 투자자 모임 '세빛회'에서 거액을 후원했다. 또 반대급 휴맥스홀딩스 대표, 김석수 동서식품회장, 권오현 SNU홀딩스 이사회 의장, 최규남 SK수펙스추구협의회 회장, 세빛회 등에서 식사권을 재능기부, 주첨을 통해 식사권을 받는 후배 창업자들과 만남을 약속하기도 했다.

성공적인 창업 사례로 글로벌 농·축·수산물 무역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

는 신호식(기계공학96-00) 트리트지 대표가 창업 경험과 비전을 들려준 데 이어 학생, 교원, 동문 창업자가 피칭 세션에서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설명했다. 이승아(법전원 19입) 레어리 대표는 AI 기반으로 얼굴형과 이목구비, 체형을 분석해 헤어, 메이크업, 패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수환(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관악아날로그 대표는 다양한 센서 인터페이스 반도체를, 이해성(의학16-20) 에어스메디컬 대표는 9개 국가 병원에 공급 중인 AI 기반의 MRI 촬영 가속화 솔루션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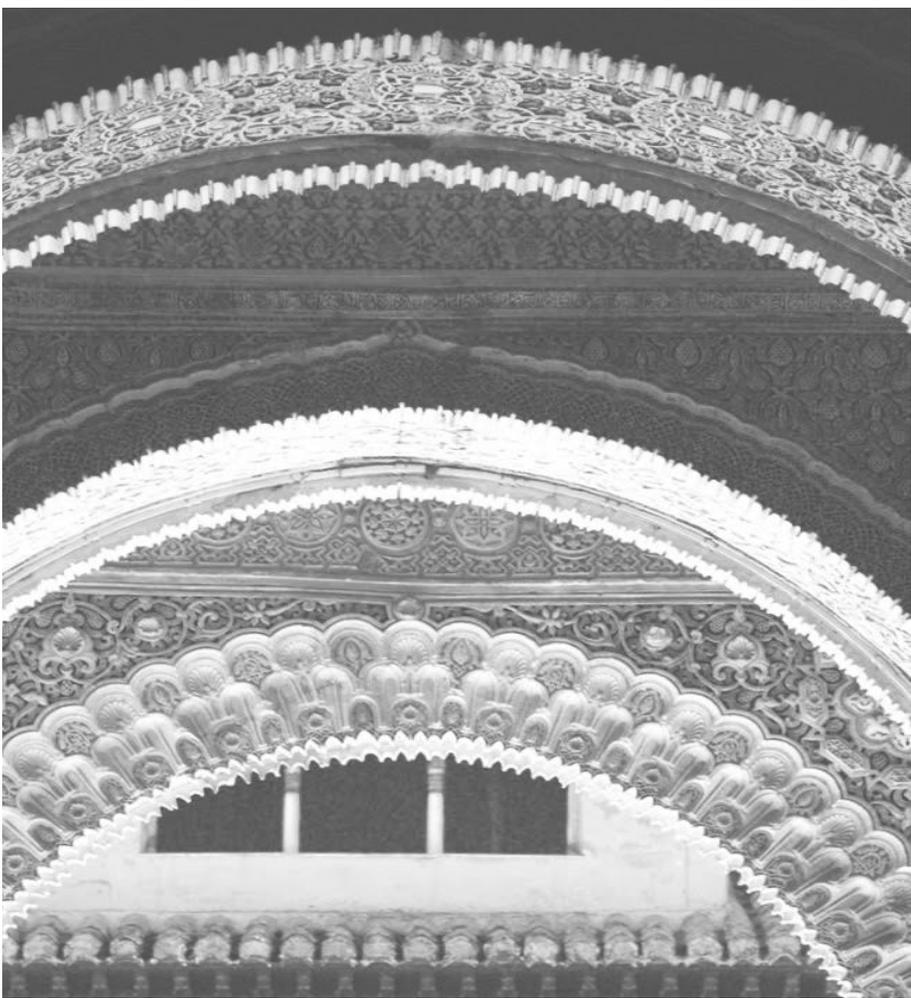
유성한(전기공학03-07) 반프 대표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으로 타이어 안전 정보와 도로 노면 상태 정보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기술을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테이블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에 참여해 행사에 활력을 더했다.

모교는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대 창업 4.0' 비전을 수립하고 혁신 창업 지원을 위한 학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사진한컷

그라나다 알함브라



모원균 (공대 89)

빛과 그림자로 구현된 공간의 깊이 수백년동안 지켜져 덧씌워진 영욕의 역사 2013년 여름 Alhambra, Granada Spain

※ 동문 사진 공모합니다. 3MB 이상의 화질로 300자 내외의 사진 설명을, 성함·학과·입학연도·주소·휴대폰 번호와 함께 snuaaUSA17@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모교 도서관에 '박완서의 서재'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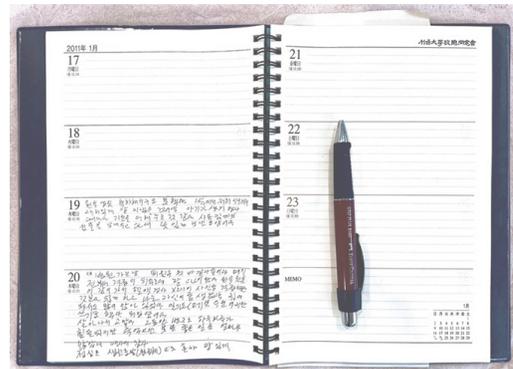
모교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에 박완서(국문 50입) 작가의 소장 서적과 기록 등을 모은 아카이브가 설치된다. '아치울 노란집'으로 불리는 박완서 작가의 자택 서재도 재현된다.

모교는 9월 19일 중앙도서관 관정마루에서 박완서 작가의 유가족인 호원숙(국어교육 72-76) 작가와 호원경(의학76-82)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 유흥림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카이브 설치 협약식을 열었다.

박완서 아카이브는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에 약 99㎡ 규모로 조성된다.

박완서 작가가 말년을 보낸 경기 구리의 '아치울 노란집' 서재를 재현하고 가족에게 기증받은 작가의 도서 자료와 비도서 자료로 채울 예정이다. 도서 자료에는 박완서 작가의 서재에 있던 도서 3000여 권을 비롯해 저서, 소장서, 학술서 등이 포함됐다.

비도서 자료로는 작가의 일생이 담긴 사진 앨범 30여 권과 책상, 재봉틀 등 생활사 자료를 기증받았다. 이영학 조



각가가 만든 흉상, 박완서 작가가 딸 호원숙 작가와 함께 만든 뜨개 담요 등도 함께 전시한다.

협약식에서는 박완서 작가가 2001년부터 2011년 1월 별세 직전까지 쓴 일기 11권이 처

음으로 공개됐다. 방문한 곳, 한 일, 만난 사람, 느낌 등을 진솔하게 기록한 것으로 총동창회 다이어리에 쓴 일기도 포함됐다. 박완서 동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500여 통 등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육필자료를 기증받았다.

박완서 작가의 책은 모교 중앙도서관 문학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로 꼽힐 만큼 서울대인의 사랑을 받아 왔다.

내년 상반기 중 아카이브가 완공되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은 계속해서 한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서울대인의 아카이브를 설치함으로써 도서관(Library) 기능에 기록관(Archive)과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더한 라키비움(Larchiveum)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



박평일
(농대 69)

내가 만약

내가 만약 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
내가 만약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고,
고통 하나를 달래주고
기운을 잃고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동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라.

-미국 신비주의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

조용한 열정(A quiet passion)의 신비주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1830~1886). 그녀는 자신이 쓴 2천여 편의 시들 중 생전에 일곱 편

의 시를, 그것도 익명으로 한 로컬 문예지에 소개했을 정도로 철저한 무명의 시인이었다.

디킨슨은 인생 대부분을 매사추세츠주 숲속의 집에서 은둔해 살며 시를 쓰는데 바쳤다.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는 소수의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만 공개했다. 그녀의 은둔적 삶이 그러했듯, 그녀의 시들도 그녀가 죽기전까지 숲속에 묻혀 고독을 씹어야 했다.

그러다가 그녀의 친구이자, 율케 언니의 노력으로 사후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미국의 대표적인 신비주의 시인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디킨슨의 시를 읽을 때마다 나는 ‘시는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씩씩한 생각이 들곤 한다.

디킨슨 처럼 생전에 무명의 시인으로 묻혀 있다가 사후에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으로 영국의 신비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를 빼놓을 수가 없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읽으며 사업적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을 얻었던 걸로 알려져 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의 시 ‘순수의 전조’에서 이렇게 읊조렸다.



“한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기 위해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원을 담아라.”

선가의 깨달음인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 한방울 속에 우주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를 연상시키는 시다.

시라는 것은 본래가 머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감들을 가슴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시들은 신비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시를 신비주의적 시와 비신비주의적 시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비주의 시



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시인들의 시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나는 무엇이 성공이고,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성공에 대한 정의도 모른다.

다만 죽기전에 아내 케플로부터 “여보 나는 만약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 다시 결혼하고 싶어”란 진실한 고백을 들을 수 있고, 아들 제임스로부터 “아빠, 나는 만약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진실한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라는 막연한 소망을 갖어보곤 한다. 내주체에 너무 지나친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젓과 꿀이 흘러야 할 곳에 ‘데모사이드’?

소설 속의 주인공 존 벅크스는 9·11 테러로 가족을 잃는다. 그를 절망에서 건져낸 이는 조이 핼이라는 동양계 여성. 벅크스는 이 여성에 이끌려 한 비밀결사회에 가입한다. 대량학살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두 사람은 조직으로부터 극비 임무를 부여받는다. 전쟁과 테러의 주범들을 모조리 제거해 인류가 겪을 참극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것이다. 각종 첨단무기를 지니고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받은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첫 작전지인 멕시코로 향한다. 때는 1906년, 교통수단은 타임머신이다.

루돌프 조셉 러멜(1932~2014)이 쓴 가상의 역사체험기 ‘네버 어게인(Never Again)’ 시리즈는 이렇게 시작한다. 멕시코에서 혁명과 내란의 수괴들을 색출해 제거하고는 민주정부를 세운다. 다음 목표는 일본제국. 조선을 집어삼키고 대륙침략을 획책한 일본 군부 강경파들을 속시원하게 제거한다. 이어 유럽으로 건너가 히틀러와 스탈린 등 악명높은 독재

자들을 처단해 지구상에서 전쟁과 대량학살의 원인들을 없앤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덧붙여 재창조한, 이른바 ‘팩션(faction)’ 이어서 마치 20세기 잔학사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을 준다. 등장인물들의 처절한 증언과 두 주인공의 목숨을 건 임무수행이 생생하게 오버랩되면서 감동이 몇 배로 다가온다.

‘네버 어게인’의 첫 편 제목은 ‘데모사이드(Democide).’ 물론 저자가 만들어낸 합성어다. ‘데모’는 ‘데모크라시(민주주의)’ 또는 ‘데모그래피(인구학)’를 뜻하는 접두어. 여기에 살인을 의미하는 ‘사이드’를 붙였다. 우리말로 옮기면 ‘민주주의 죽이기’나 ‘양민학살’ 쯤이 되겠다. 정권의 자국민 학살을 뜻하는 용어로도 자주 쓰인다.

러멜은 예일대학을 거쳐 하와이 대학 교수로 근무한 세계적인 정치학자다. 18살 때 자원입대해 6·25에 참전한 바 있는 그는 당시 전쟁고아의 참상에 충격을 받고 평화연구에 몸바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생존시 그는 인민군의 포격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서울거리에서 한 소녀가 어린 동생을 업고 울고 있는 사진을 서재에 걸어뒀다. 자신의 다짐이 약해질까 두려워해서다.

저자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을 동원, 수백만명을 살상한 중국의 마오쩌둥도 암살조를 보내 단죄한다.

러멜이 문득 생각나는 것은 요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이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세력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대규모 살육전으로 전개돼 양측에서 벌써 6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둘러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만 봐도 미국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의 분쟁의 역사는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에서 ‘젓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가나안의 주인 자리를 놓고 두 인종이 또다시 복수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러멜 교수에 따르면 1816~2005년 사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전쟁은 모두 371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205건은 비민주적인 국가간 전쟁, 166건은 비민주와 민주국가 사이에서 일어났다. 흥미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끼리 전쟁을 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러멜이 제시한 처방은 딱 하나, 바로 민주화다. 권력의 집중화는 필연적으로 ‘데모사이드’를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도처에 자유가 넘실대고
평화의 비둘기가 날갯짓을 하네
사랑의 숨결은 질게 덮인 구름을 흩날리고
탱크의 굉음이 아침의 고요를 깨뜨리지 않는 그날
자유는 날들이 일상의 삶이 되는 그날
비록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류애로 하나가 되네.’

러멜이 책에 쓴 시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희생되고 있는 무고한 죽음에 대한 추모사처럼 들린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흥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김창수 (약대 64)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코네티컷 - 오인석 (법대 58)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용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권봉성 (문리대 64)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이호진 (간호대 74)
임낙균 (약대 64)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종률 (사대 51)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공순옥 (간호대 66)
방은호 (약대 43)
박평일 (농대 69)
서희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북가주
강재호 (상대 57)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시카고
강영국 (수의대 67)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이은상 (상대 52)

미네소타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민흥기 (문리대 61)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코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트랜드
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 (법 58) 강동수 (법 59) 강윤희 (간 46) 강창만 (의 58) 강창자 (간 69) 강희석 (상 81) 고석규 (치 65) 권기상 (대 72) 권복성 (문 64) 김진진 (문 62) 김영배 (미 61) 김경수 (치 54) 김경우 (미 61) 김경자 (미 60) 김광은 (음 56) 김나연 (공 65) 김민수 (법 59) 김명수 (법 83) 김명우 (법 61) 김명원 (공 59) 김상찬 (문 65) 김석희 (법 59) 김성호 (법 64) 김수길 (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 (법 58) 김영경 (생 60) 김용채 (문 61) 김일영 (의 65) 김재석 (의 61) 김재영 (농 62) 김정애 (간 69) 김정호 (농 59) 김중표 (법 58) 김중일 (공 62) 김창진 (공 77) 김대현 (문 78) 김태훈 (법 53) 김희창 (공 64) 나두섭 (의 66) 나승욱 (문 59) 노명호 (공 61) 노영일 (의 64) 문영길 (문 61) 박영근 (상 63) 박민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원 (대 20) 박용 (문 89) 박은숙 (미 62) 박인수 (농 64)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임하 (치 56) 박중건 (의 56) 박중수 (수 58) 박찬홍 (농 63) 박혜목 (간 69) 박호현 (의 52) 박흥근 (공 64) 백동원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손갑수 (약 59) 손기웅 (의 55) 손학식 (공 61) 송명국 (문 81) 송요준 (의 64) 신건호 (법 63)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문 (공 65) 양태준 (상 56) 오찬수 (약 57) 오형원 (의 53) 유종민 (공 64) 유덕영 (공 57) 유이중 (농 74) 유석현 (치 55) 유영돈 (법 59) 윤희성 (치 65) 윤희준 (치 65) 이권일 (의 62) 이경희 (인 83) 이기준 (법 54) 이법식 (공 61) 이상우 (의 56) 이서희 (법 70)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현 (간 70) 이윤환 (공 64) 이원익 (문 73) 이익삼 (사 58) 이재권 (법 56) 이준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모 (간 69) 이준호 (상 65) (고)이중희 (공 53) 이창신 (법 57) 이재진 (문 55) 이호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문빈 (상 58) 임석중 (공 50) 장기열 (치 55) 장기창 (공 56) 장대욱 (음 67) 장문석 (문 66) 장문섭 (공 69) 장소현 (미 65) 장원경 (미 73) 장윤일 (공 60) 장윤희 (사 54) 장정용 (미 64) 전경배 (의 69) 전원일 (의 77) 전상욱 (사 52) 정동주 (생 72) 정예현 (상 63) 정영웅 (상 63)	정재형 (약) 정철통 (의 61) 정현진 (간 68) 정형민 (문 71) 정혜령 (간 72) 정황 (공 64) 제영혜 (생 71) 조경애 (음 64) 조재국 (농 67) 주정래 (상 65) 차중환 (사 54) 최복철 (공 70) 최영구 (상 61) 최영진 (미 57) 하계현 (공 64)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성구 (상 53) 한의일 (공 62) 한정현 (치 55) 홍성선 (약 72) 홍수영 (법 55) 홍수웅 (의 59) 홍현승 (공 55) 홍현상 (의 55)	뉴욕 박선섭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음 57) 김순경 (약 61) 김승호 (공 71) 김우영 (공 60) 김우무 (공 75) 김영환 (치 55) 김영휘 (법 80) 김영연 (문 63) 김정희 (간 69) 김중원 (생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암 (의 52) 김현중 (공 63) 민인기 (의 67) 리준무 (음 65) 박건이 (공 60) 박경희 (음 57) 박은규 (약 72) 배상규 (약 60) 서충선 (사 57) 선종철 (의 59) 성기호 (의 57) 송기인 (의 60) 송용길 (대학원 69) 신두식 (의 58) 신응남 (농 70) 안태홍 (상 65) 앙성택 (상 66) 에드워드 강 (문 60) 유인숙 (사 52) 유재섭 (공 65) 육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이강욱 (공 70) 이명중 (공 72) 이문봉 (미 76) 이종욱 (농 69) 이종호 (의 63) 이상근 (상 84) 이영일 (의 60) 이우성 (사 57) 이태안 (의 61) 이홍우 (공 50) 전병삼 (약 54) 정동성 (상 58) 정화영 (사 61) 정호진 (사 59)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중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상 60) 최영태 (문 67) 최승우 (공 71) 최영무 (법 69) 한병용 (문 71) 허경력 (의 71) 허선행 (의 58) 허정열 (사 63)	뉴잉글랜드 박노균 (상 51) 김경일 (공 58) 김선희 (약 59) 박영철 (농 64) 송미자 (농 62) 윤상래 (수 62) 윤영자 (미 60) 이규진 (약 60) 이금하 (문 69) 이은주 (문 73) 이의인 (공 68) 임영호 (공 72) 정선수 (약 68) 정정욱 (의 60) (고)주창준 (의 50) 최선의 (문 69) 한서동 (의 61)	네바다 김삼순 (상 67) 김영중 (치 66) 김정수 (문 69) 민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정일 (의 61) 박창용 (공 56) 소진문 (치 58) 송재현 (의 45) 안영학 (문 57) 안기정 (간 72) 옥길원 (사 59) 윤경순 (사 61) 윤덕순 (치 62) 이간정 (공 69) 이윤곤 (공 75)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고)이윤모 (농 57) 이종일 (의 65)	시카고 강영국 (수 67) 구경희 (의 59) 김길준 (의 59) 김규호 (의 58) 김병용 (문 65) 김성일 (공 68) 김중주 (간 69) 김윤하 (공 66) 김정수 (문 69) 민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정일 (의 61) 박창용 (공 56) 소진문 (치 58) 송재현 (의 45) 안영학 (문 57) 안기정 (간 72) 옥길원 (사 59) 윤경순 (사 61) 윤덕순 (치 62) 이간정 (공 69) 이윤곤 (공 75)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고)이윤모 (농 57) 이종일 (의 65)	오regon 강재호 (상 57) 김상철 (공 82) 김경희 (법 56) 김현양 (공 64) 남광순 (음 64) 박성수 (공 59) 박영훈 (공 72) 송영훈 (상 57) 신규영 (공 64) 안호상 (문 58) 위정호 (의 67) 이관모 (공 55) 이상원 (공 65) 이창환 (공 56) 이흥기 (공 62) 임승배 (문 66) 임정란 (음 76) 전병련 (음 54) 정춘민 (간 67) 조태욱 (사 60) 김경선 (농 65) 홍병의 (공 68) 황동하 (의 65)	알래스카 오하이오 김영자 (간 56) 박희진 (농 78) 최용성 (의 55) 한국남 (공 57) 한영준 (사 6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박훈 (공 74) 이영웅 (의 57)	워싱턴 DC 고의걸 (의 55) 권철수 (의 68) 김기봉 (공 63) 김기환 (공 67) 김내도 (공 62) 김부근 (의 58) 김영란 (사 58) 김윤호 (공 64) 김우환 (치 88) 김희주 (의 62) 나연수 (사 57) 남준일 (사 69) 박인영 (의 69) 박찬모 (공 54) 박흥우 (문 61) 백순 (법 58) 백용현 (공 64) 신경은 (문 65) 우재형 (상 54) 유영진 (인 74) 유영준 (의 74) 이권형 (수 54) 이내원 (사 58) 이서구 (문 61) 이선구 (미 65) 이성배 (수 57) 이연주 (치 88) 이영덕 (사 61) 이종국 (의 52) 이준영 (치 74) 이진상 (공 57) 이철수 (공 61) 임광록 (간 72) 정영자 (사 56) 정원자 (농 62) 조병선 (의 65) 천권희 (간)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워싱턴주 김교선 (법 54) 김인배 (수 59) 류성열 (공 72) 변동혜 (법 58)	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숙 (상 57) 이명자 (간 74) 이희백 (의 55) 정영자 (사 56) 정준하 (농 58)	유타 김인기 (문 57)	조지아 김영서 (상 54) 김중구 (수 73) 김현희 (간 59)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오경호 (수 60) 이종석 (의 54) 임수암 (공 62) 정선희 (공 65) 최덕순 (간 58) 한성수 (의 54)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 58)	커네티컷 최창승 (의 52)	테네시 김경덕 (공 75)	텍사스 김창환 (공 81) 유환 (농 56) 윤영주 (문 60) 진기주 (상 60)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서중민 (공 64) 안창현 (의 55)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 정의철 (의 55) 하재청 (문 67)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국간 (치 64) 김규화 (상 63) 서의원 (공 66) 성정호 (약 59) 신선자 (사 60) 안세현 (의 62) 유영걸 (의 70) 윤정나 (음 57) 이규호 (공 56) 이서영 (상 74) 이수경 (자 81) 이홍일 (상 70) 조화연 (음 64)	전무식 (수 61) 전방남 (상 73) 정덕순 (상 63) 정홍택 (상 61) 조정현 (수 58) 주기목 (수 68) 지흥민 (수 61) 지동희 (문 57) 한수웅 (의 55) 한용오 (보 70)	하와이 김달욱 (사 55) 김용수 (농 75) 김용근 (공 63) 안은식 (문 55) 이재형 (수 61) 최경윤 (사 51) 최영환 (공 56)	하트랜드 김경숙 (가 70) 김태찬 (음 80) 배규영 (사 68) 오영순 (생 69)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치현 (약 77) 임소연 (음 91) 정민재 (공 71) 조원지 (문 63)	휴스턴 김영일 (의 55) 박석규 (간 59) 박유미 (약 62) 박태우 (공 64) 진기주 (상 60) 최성호 (문 58) 최용천 (수 83) 이윤성 (의 51) 이은애 (음 81)	록키마운틴스 송요준 (의 64) 전남민 (사 72)	에리조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임낙균 (약 64) 10,000 송영두 (공 59) 200 백옥자 (음 71) 200 이법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한귀희 (미 68) 50 전상욱 (사 52) 1000 이법식 (공 61) 200 한정현 (치 55) 500 뉴욕 신응남 (농 70) 500 김해암 (의 52) 100 리준무 (음 65) 200 윤철 (문 54) 200 허선행 (의 58) 200 박선섭 (공 61) 2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필라델피아 최창승 (의 52) 5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41,000	네바다 김삼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커네티컷 최창승 (의 52) 5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워싱턴DC 박평일 (농 69) 500 권철수 (의 68) 200 서윤석 (의 62) 200 백순(법 58) 1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200 시카고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1,0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2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택 (공 65) 240 강호석 (상 81) 240 이종모 (간 69) 240 뉴욕 신응남 (농 70) 240 장학기금 시카고 이용락 (공 48) 3,0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200 홍성선 (약 72) 100 튀르키예 기부금 남가주 서진 (간) 3,0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미주재단 2,000 박수경 (생 84) 900 홍훈정 (음 70)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경희 (인 83)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모교발전기금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오regon 김영자 (간 56) 1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100	Charity Fund 필라델피아 신의석 (공 53) 5,00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일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	---	--	--	---	--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jun@junchangcpa.com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의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507, LA, CA 90006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Steve Ko, DDS	
고석규 (치대 65)	
T: 818-988-6393	
7222 Van Nuys Bl., Van Nuys, CA 91405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3.5" x 2")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5" x 4.5")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종수(수) 박창규(약) 이흥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중(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효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임춘택(상) IT국장: 심재호(공)/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섭외국장: 안혜정(가)/함은선(음, 워싱턴DC) 홍보국장: 김승배(음) 오락국장: 임항균(사)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례(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평일(농) 위원: 황경순(공), 이지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남加州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김경무(공대69)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차기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북加州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법섭(공 79)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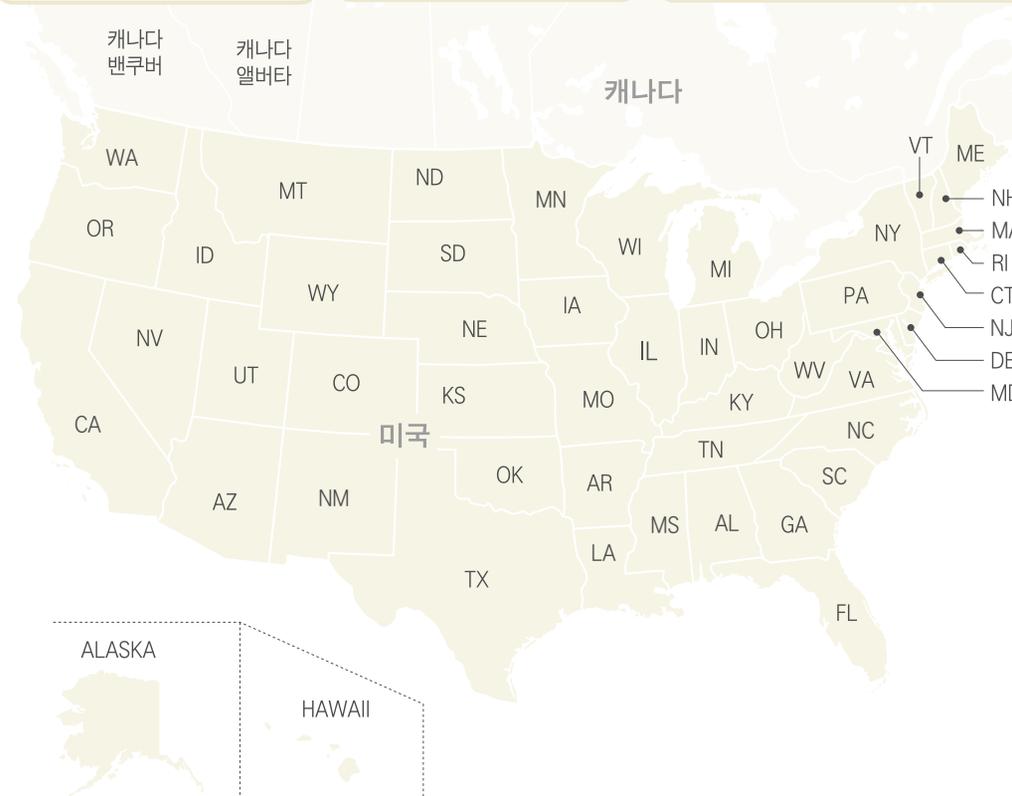
회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황치룡(문리대 65) T: (224)334-1224 chi.whang@gmail.com
차기 회장 조규승(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김종범(공대 83) T: (203) 909-2387 kimjongb@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연영재(공대 74) T: (201)233-7108 jayyeo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msft@hot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커네티컷 CT

회장 박용해(상대 83) T: (203)767-8187 yhpax@g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 sophia@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 91)
회장 kunhok@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310) 689-6366 syeom@vols.utk.edu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SR WINDOW LLC
901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C. 213-700-4119 / O. 323-232-1700 Fax 323-232-4700

최고급 이중창문 3/4 DUAL GLASS
이중유리에 들어가는 Spacer, Screen Frame, Insulated Silicone 등 모든 부속은 미국 최대 Hardware maker인 C.R. Laurence Co. 제품입니다. SR의 PROFILE은 한국 LG 화학이 개발한 무공해 첨단소재를 사용했고 PATIO DOOR의 PROFILE은 독일제.

WINDOW PRODUCTION PERSONNEL WILL INSTALL IT. IT ALSO SOLVES SENSITIVE AND DELICATE PARTS. 윈도우 제작 직원들이 설치합니다, 시공에도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J.S. LEE / SUPERVISOR / TECHNICAL COLLEGE OF HANYANG UNIV. KOREA, EXCELLENT TECHNOLOGY EVALUATION AWARD(NICE) 한양공대/NICE 선정 최우수 기술평가



JUAN SUAREZ / MANAGER / 20 YEARS EXPERIENCED WINDOW PRODUCT



WON RYU / CEO / PH.D / FORME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FOUNDED SR WINDOW 19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유원(대학원 · 언론정보 74)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BIG SALE
10 WINDOWS

DUAL GLASS /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LIFETIME WARRANTY
한인최초의 창문제조공장
NFRC MEMBER
(APPLIED FOR CERTIFICATION)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詩: 골프 인생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뺏으시고
백 수위는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 공에 정성 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잘씩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2. 예의를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 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 동네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 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것 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 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자신일세.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 보면 청개구리 "공" 이란놈
곰배팔이 팽이 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 맞은 두꺼비기 웅덩이로 뛰어 들 듯
돌 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 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 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 하소.

4. 과욕은 금물

핸들을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 여덟개 기회 있고 일흔두번 기대 있네
조금 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놈 자~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 드니 썩크 뽀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 하나!
전 흠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 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 아닌 "업보"라네.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 거리 남은 거리
수학 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 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 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욱 하고 내려 치면
공이란 놈 날아가서 그린 위에 꽂인다네.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 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섶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 놀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 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 보세
자기 것을 계산 하고 내가 나를 감독 하고
백이라도 단 한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엔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7.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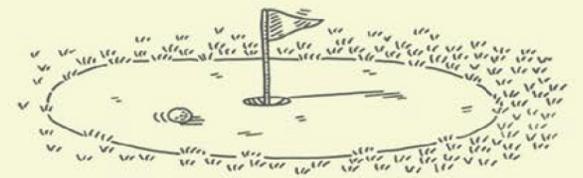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한 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 이뤄
기적 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흡인원은 못할 소냐?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 여덟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님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 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두~기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듯이 없어 졌네.

9. 가정

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 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 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 백년을 살아 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 마소!
천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 새끼
저녁 밥상 차려 놓고 아빠 오기 기다리네.



NEW YORK GOLF CENTER

www.nygolfcenter.com

HERALD SQUARE



131 We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564.2255

GRAND CENTRAL



100 Park Avenue (Entrance on 40th)
New York NY 10017
Tel: 212.564.0078

CHELSEA PIERS



59 Chelsea Piers
New York NY 10011
TEL: 212.242.8899



詩人: 이전구(李典九)

1964년 서울대 농대 졸업
뉴욕골프센터 그룹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9대 회장
미동부 한국문인협회 14대 회장

